RUSSIA IN&OUT

RIO

2026. 7 | No. 27

특집 기획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이슈 진단 우크라이나의 '후방 공세': 러시아는 흔들리고 있는가?
RIO 초대석 마리야 오세트로바 박사, 러시아 속 '코레야'를 진단하다
크렘린 전망대 '철의 펠릭스,' 제르진스키를 둘러싼 재평가 움직임
경제 내비게이션 올리가르히의 귀환: '세계화 수혜자'에서 '주권 자본주의 설계자'로
역사 프리즘 건초의 역사: 문명을 움직인 풀 한 줌의 힘
예술 현장 오베리우 박물관: 망각에서 돌아온 시인들의 빈 집
미디어 트렌드 국제 스포츠계 복귀: 러시아의 권리 회복과 당면 현실

ISSN 3091-9371 (Print) | ISSN 3091-9487 (Online)

Photo Essay

물과 불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노라면 누구나 생각에 잠기곤 한다. 개인적으로는, 여름철 상트페테르부르크 백야 무렵 저녁노을이 새벽빛으로 이어지는 풍경을 배경으로 다리가 열려 있는 모습도 그런 대상이라 여긴다. 에르미타시 박물관에서 바실리예프스키 섬의 뾰족한 곶으로 연결되는 궁전 다리의 거대한 교각들이 네바강 위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장면이 그렇다. 구조와 공학적 설계, 제정 러시아에 마침표를 찍은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기 불과 두 달 전에 개통된 역사적 사실 등등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문화유산이다. 모든 걸 떠나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사진·글: 콘스탄틴 코코시킨]

발간사

양자역학의 핵심 명제는 간단하다. 인간의 주관적 개입, 관찰, 좀 더 승화된 차원에서는 일종의 제의가 사물 자체의 본성을 바꾼다는 것이다. 확률적 불확정 상태에 있는 사물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관찰자의 주관적 개입이다. 닐스 보어의 이 입장에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며 맞섰지만, 결국 옳았던 쪽은 보어였다. 유리 로트만도 비슷한 통찰을 남겼다. 지나온 사건을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객관적 필연으로 결정된 듯 보이지만, 당시로 돌아가 프로스펙티브하게 보면 실은 수많은 주관의 우연한 충돌이 만든 결과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운명을 사는 게 아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관점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그리고 결국 우리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싫든 좋든 스스로 선택한 관점으로 개입하고, 그 관점이 우리 개인과 사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철저히 우리에게 유리해야 한다. 그 관점이 힘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사물과 그 사물을 둘러싼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개입하는 주관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주관적 제의가 철저히 보편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RIO 27호 「예술 현장」에서는 죽음으로 완전히 잊혔던 소련의 전위 시파 '오베리우'를 전시물이 아니라 학예사의 제의로 다시 살려내는 박물관을, 「역사 프리즘」에서는 마소를 먹이는 한 낱 건초를 러시아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한 에너지원으로 승격시키는 해석의 힘을 짚는다. 「크렘린 전망대」는 악마의 화신으로 역사에 매장됐던 제르진스키를 국가 건설과 어린이의 수호자로 복원하는 현대 러시아의 주술을 시연한다. 「특집 기획」에서는 미국의 주관적 판단과 달리 새로운 단일 패권이 아니라 다극화된 통화 질서를 준비하는 중국의 화폐 전략을, 「이슈 진단」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둘러싼 상이한 주관적 판단들의 충돌을 다룬다. 「경제 내비게이션」에서는 주권 자본주의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읽어내는 올리가르히의 귀환을, 「RIO 초대석」에서는 K-컬처를 자기화하는 러시아인들의 문화적 제의를 소개한다. 「미디어 트렌드」는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서방의 자기 균열을 짚어낸다. 반쪽 주관으로 기울어진 러시아에 관한 판단에 간주관적 균형압을 더하기 위한 RIO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026년 7월 31일

편집위원회

RUSSIA IN&OUT

RIO 2026년 7월호 No. 27

편집주간 김현택
편집위원 라승도, 박종호, 이대식, 김유정, 이태훈, 임명묵
디 자 인 김지연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813호
https://rioins.kr
info@rioins.kr

차례

각 차례 제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4 | 특집 기획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허핑

미국 달러의 단일 패권이 동요하는 가운데 위안화 국제화 및 디지털화, 브릭스(BRICS) 연대를 통해 새로운 다극적 기축통화 질서를 추진하는 중국의 통화 전략을 분석한다.

16 | 이슈 진단
우크라이나의 '후방 공세': 러시아는 흔들리고 있는가? 임명묵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후방 공세와 러시아의 대응을 중심으로 7월 전황과 양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살펴보고 전쟁 향방을 전망한다.

26 | RIO 초대석
마리야 오세트로바 박사, 러시아 속 '코레야'를 진단하다 김현택

오세트로바 박사를 만나, 러시아 한류의 최근 양상, 한류 자산을 활용한 양국 간 협력 잠재력, 젊은 세대 학자들을 위한 협업 및 공동연구 진작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본다.

37 | 크렘린 전망대
'철의 펠릭스,' 제르진스키를 둘러싼 재평가 움직임 라승도

소련 최초 비밀경찰 조직인 '체카'의 설립자로 유명한 펠릭스 제르진스키의 공과를 둘러싼 재평가 움직임이 7월 20일 그의 사망 100주기를 전후해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를 고찰한다.

45 | 경제 내비게이션
올리가르히의 귀환: '세계화 수혜자'에서 '주권 자본주의 설계자'로 이대식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 정부의 재국영화 사이에서 출구를 모색하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생존 전략을 통해 러시아 경제의 판도 변화를 조명한다.

52 | 역사 프리즘
건초의 역사: 문명을 움직인 풀 한 줌의 힘 미하일 드로즈도프

건초가 인류 문명에서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며 말과 가축의 사료를 넘어 전쟁과 농업, 물류를 떠받친 전략 자원으로서 건초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요성을 되짚어본다.

61 | 예술 현장
오베리우 박물관: 망각에서 돌아온 시인들의 빈 집 이영수

2025년 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문을 연 러시아 '마지막 아방가르드' 시인과 작가 동인회인 오베리우 박물관의 전시회 특성과 색다른 관람 방식에 담긴 의미를 소개한다.

68 | 미디어 트렌드
국제 스포츠계 복귀: 러시아의 권리 회복과 당면 현실 김유정

IOC의 제재 완화 결정을 통해 러시아 스포츠의 국제무대 복귀가 종목별 출전 결정, 개최국의 입국 제한, 스포츠 외교력 회복이라는 다층적 과제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글로벌 기축통화 경쟁을 진단하다

전 세계 지정학적 단층선이 요동치는 가운데 80여년 넘게 굳건하게 전 세계 금융을 독점한 미국의 달러 패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연방 부채의 기하급수적 팽창,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BRICS)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탈달러화와 대안적 결제 체계 구축 시도 등은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실물 경제의 생산성 우위를 재탈환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자산화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1970년대에 그랬듯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번 「특집 기획」에서는 글로벌 기축통화의 역사를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단계 미국과 중국 간의 기축통화 경쟁과 그 사이에서 글로벌 초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연재 순서

1. 기축통화 탄생과 지속의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2. 미국 기축통화 정책의 현황과 전망

3.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4. 러시아가 꿈꾸는 글로벌 금융 질서는 무엇일까?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허핑(何平) 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 부원장·금융학과 교수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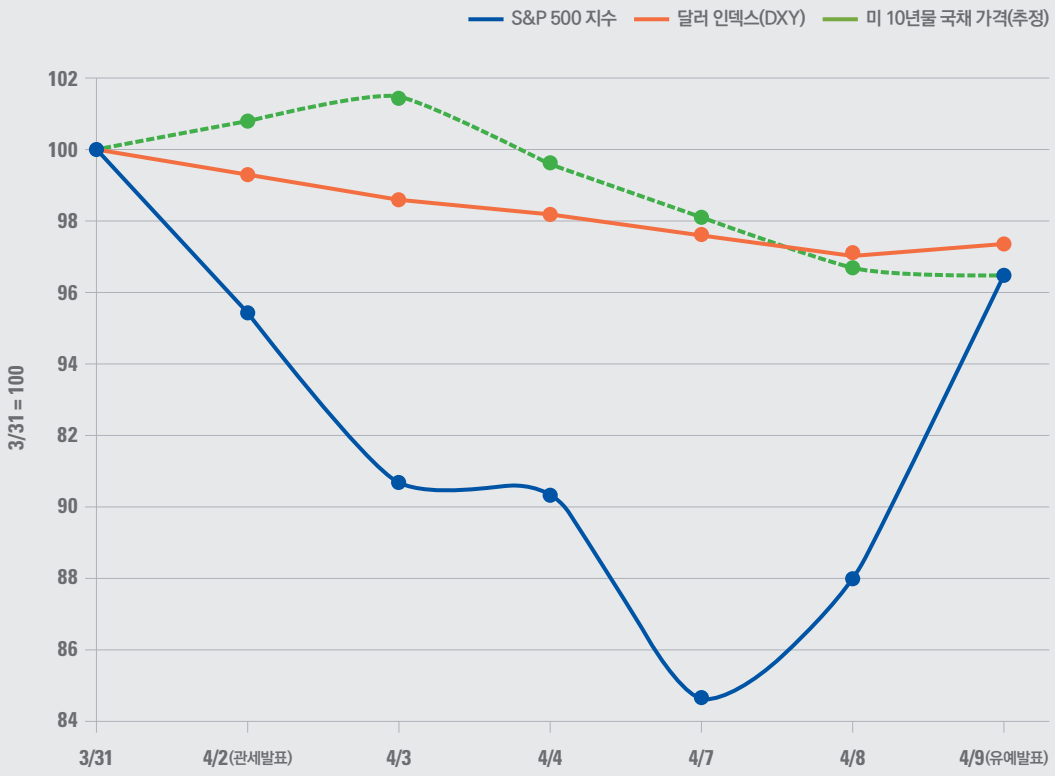
기축통화 경쟁은 본질상 신용과 통제권, 세계 금융 질서를 둘러싼 심층적인 전략적 경쟁이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의 교체는 항상 길고 격렬한 권력 이동을 동반해 왔다. 국가 경제력, 개방된 금융시장, 국제 정치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영국 파운드화와 미국 달러화가 차례로 기축통화로 자리 잡았다. 주권 통화가 일단 다른 국가들에 의해 대량으로 보유되어 준비 자산으로 사용되면, 지전략적 의미를 지닌 권력 도구로 변모한다. 발행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 세계에 제공하는 공공재이자 서비스이며, 동시에 글로벌 자원을 확보하고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렛대이기도 하다. 반면 보유국 입장에서는 이는 '독이 든 포도주'와 같다. 금융 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발행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높은 민감도와 정치적 위험 노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핵심 문제는 발행국이 얻은 권력에 제약이 있는지, 발행국이 지는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권력에 상응하는지 여부이다. 현재 달러의 신용 균열은 다른 통화와 새로운 메커니즘에 기회를 열어줬으며, 글로벌 기축통화 체계는 '달러의 독주'에서 '다원적 공존'으로 진화하고 있다. 글로벌 준비 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2000년 70%를 넘었던 점유율은 이미 현저히 하락했다. 유로화와 엔화, 파운드화의 지위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위안화 등 신흥 시장 통화

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의 부상은 국제 통화 체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현행 달러 체제의 취약성

달러 체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애초에 설계 자체에 있는 구조적 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스스로 쌓아온 정책 실수다. 1960년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은 한 나라의 화폐를 세계 준비 통화로 쓰면 근본적인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려면 미국은 계속 무역적자를 내야 하고, 그 적자는 안전자산(미국 국채) 수요를 끝없이 늘려 미국이 국채를 계속 찍어내게 만든다. 그 결과 미국 연방 부채는 2026년 5월 초 기준 39조 달러에 육박했다.[1] 여기에 주식시장 거품까지 겹쳐, 같은 시기 S&P500 주가수익비율(PER)은 27배에 달해 10년 평균보다 2 표준편차 이상 높은 '비싼' 구간에 들어섰다. 또한 기축통화라는 지위 때문에 달러 환율은 실제보다 비싸게 유지됐고, 이는 미국 수출 경쟁력을 깎고 제조업을 국외로 밀어냈다. 그 결과 제조업 비중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 아래로 떨어져 무기 생산 능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정책 실수가 겹쳤다. 대러시아 제재처럼 달러 결제망을 무기로 쓴 일은 각국이 대안을 찾게 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다가 갑자기 죄면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안겼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연준 독립성을 흔들고 일방적 관세를 매기며 다자주의를 저버려 신뢰와 법치를 훼손했다. 2025년 '상응 관세'와 대규모 재정지출은 부채 부담을 더 키워, 미국 국채가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믿음마저 흔들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따로 움직이던 달러·미국 주식·미국 국채가 2025년 관세 시행 후 동시에 추락하는 역사상 드문 '삼중 폭락'이 나타났다. 게다가 중동에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페트로 달러' 체제의 약점도 드러났다. 이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달러를 우회해 석유를 팔아 왔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다른 중동국의 석유 수출도 막히며 달러 결제 수요 자체가 줄었다.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석유 수입국은 자국 통화 결제를 늘리는 중이다. 각국 중앙은행도 환율 방어를 위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해, 2026년 3월 말 기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둔 외국 중앙은행 자산은 약 2.7조 달러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었다.[2] 대신 금이 뜨고 있다. 금값은 2021년 초 온스당 약 1,900달러에서 2026년 초 5,000달러를 넘어서며 약 160% 뛰었고,[3] 전 세계 준비 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14%에서 27%까지 늘어 미국 국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단일 준비 자산이 됐다.[4] 여기에 위안화 결제망(CIPS),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함께 쓰는 디지털화폐 결제망(mBridge),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결제 수단까지 등장하면서,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WIFT)와 달러 체제를 거치지 않고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갖춰지고 있다.

> "달러 체제가 동요하는 이유는
> 첫째, 설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 둘째 미국 스스로의 정책 실수"



2025년 미국 달러/주식/국채 삼중 몰락 © Marketbeat, Atlantic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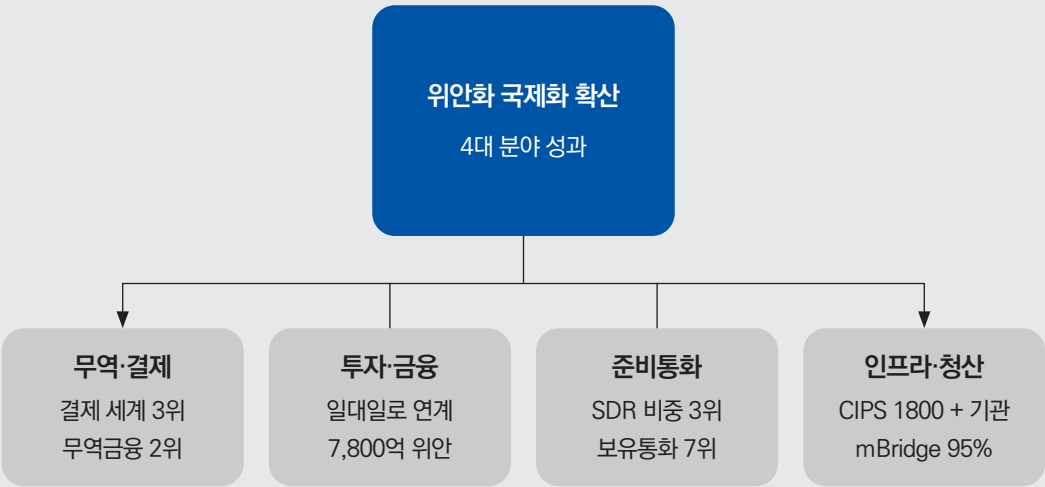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과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가 금융 안보 때문이다. 중국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국경 간 결제망을 갖추면, 아주 급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무역·투자 결제가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 지금처럼 미국 달러에 크게 의존하면 중국 기업과 개인은 늘 달러를 확보해 둬야 하고, 막대한 규모로 보유한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 때문에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위험(예컨대 제재)에 그대로 노출된다. 위안화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런 부담과 위험은 줄어든다. 둘째, 중국 경제의 체질 전환을 뒷받침하는 전략이다. 중국 경제는 '많이 만들어 싸게 수출하는' 방식에서 '질 좋은 제품과 새로운 생산력'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위안화 국제화는 이 전환 과정 곳곳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예전에는 '제품'을 수출했다면 이제는 '생산 능력' 자체를 수출하여 글로벌 산업 사슬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안화가 단순한 무역 결제 수단을 넘어 다국적 기업이 일상적으로 쓰는 '기능성 통화'로 자리 잡으면, 기업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공급망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국제 분업에도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도 맞물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일대일로는 위안화가 '지역 통화'에서 '세계가 함께 쓰는 공공 통화'로 나아갈 실천의 토대를 제공하고, 반대로 위안화 국제화는 일대일로가 고품질로 발전하도록 더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금융 뒷받침을 제공한다. 실제로 중국의 위안화 국경 간 결제망인 CIPS는 이미 189개 나라와 지역을 연결하며,

> “위안화 국제화 정책의 목표는
> 첫째, 금융 안보, 둘째, 경제의 체질 전환,
> 셋째, 일대일로와 연계”

위안화 국제화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5] 위안화 국제화가 노리는 것은 ‘달러 자리를 위안화가 빼앗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지금의 국제 통화 체제 자체를 개혁하는 데 있다. 중국의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더 다양하고 안정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는 전쟁 같은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달러 하나에만 의존하는 체제보다는 여러 통화가 함께 쓰이는 다원화된 체제가 그 자체로 더 안정적이고 회복탄력성이 뛰어나며,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중국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위안화 국제화에 유리한 ‘전략적 기회’로 보고 있으며, 이를 글로벌 통화 체제가 재균형을 이뤄가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한다. 앞으로는 위안화가 달러·유로·각 지역 통화와 함께 다원적으로 공존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최근 몇 년 사이 위안화는 단순한 무역 결제 수단을 넘어, 투자·금융에서 쓰이는 통화이자 각국이 만일을 대비해 쌓아 두는 준비 통화로까지 발전해 왔다. 무역, 금융, 인프라, 디지털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된다. 먼저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된 성과다. 2023년 10월 제3회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 포럼 이후, 중국은 7,800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 창구를 새로 열어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인프라 사업에 위안화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6] 이로써 위안화는 단순한 ‘결제 통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투자·금융 통화’로 발전하고 있다. 홍콩은 전 세계 역외 위안화 결제의 약 75%를 처리하는 세계 최대의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 일대일로 참여국과 중국 자본시장을 잇는 ‘제도적 접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7] 무역·결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뚜렷하다. 위안화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무역 금융 통화이자,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결제 통화가 됐다.[8] 2025년에는 중국이 외국과 주고받는 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위안화로 이뤄지면서, 위안화가 중국의 국경 간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 자리를 차지했다. 위안화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 등 주요 통화를 묶어 놓은 IMF의 ‘통화 바스켓’) 비중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며, 각국이 외환보유고로 쌓아 두는 준비 통화로는 세계 7위 규모가 됐다.[9] 판다채(외국 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로 발행하는 채권)와 딤섬채(홍콩 등 중국 밖에서 위안화로 발행하는 채권) 시장도 계속 커지면서, 위안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CIPS에 참여하는 글로벌 은행과 기관은 1,800곳을 넘어섰고, 그 업무 범위는 190여 개 나라와 지역까지 뻗어 있다.[10] 역외 시장에서는 홍콩의 위안화 허브 지위가 한층 더 단단해졌고, 딤섬채 발행 규모는 2년 연속 1조 위안을 넘어섰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도 역외 위안화 외환 거래 시범 사업을 시작해, 홍콩과 상하이가 함께 위안화 국제화를 이끄는 ‘쌍 엔진’ 체제를 갖췄다. mBridge 프로젝트에서는 처리되는 거래 가운데 디지털 위안화 비중이 95%를 넘어섰다.[11]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국제화 앞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 첫째, 자본계정(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자본계정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위안화는 달러나 유로처럼 국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환전·유통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외 주체가 위안화를 보유·사용하기 불편하고, 위안화가 주요 준비 통화로 자리 잡는 데도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금융시장이 아직 깊지 않다. 금융시장의 깊이와 개방도가 부족해, 위안화가 '결제 통화'에서 각국이 쌓아 두는 '준비 통화'로 도약하는 데 제약이 있다. 셋째, 투자할 위안화 자산이 아직 적다. 해외에서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달러 자산은 규모도 크고 선택지도 훨씬 넓다. 넷째, 위안화 국채의 '안전 자산' 매력이 부족하다. 중국 국채 규모 자체는 이미 세계 2위로 크지만, 역외 시장에는 위안화 국채를 핵심 담보로 삼아 사고파는 환매 및 담보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세계적인 '안전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진다. 다섯째, 결제 인프라가 아직 불편하다. CIPS에 참여하는 기관은 많지만, 전 세계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약 3.79%)은 여전히 크게 향상될 여지가 있다.[12] 금융 서비스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해외 기업과 은행이 위안화로 환전·청산할 때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달러의 관성이 여전히 매우 강하다. 달러는 오랫동안 쌓아온 역사적 관성과 다들 쓰니까 계속 쓰게 되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단기간 안에 그 지위가 흔들리기 어렵다. 게다가 미국이 금융 제재 같은 수단으로 위안화의 부상을 견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확장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 "자본 계정의 폐쇄성,
> 투자성과 안전성의 부족, 결제 인프라 미흡 등이
> 위안화 국제화에 걸림돌"

디지털 위안화는 mBridge와 국경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더 효율적인 결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통화 스와프 방식으로 위안화나 현지 통화를 직접 써서 무역 결제를 실행할 수 있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 위안화 자금 조달 - 역외 시장'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금융 인프라 측면에서도 CIPS는 홍콩거래소 같은 해외 금융 인프라와의 상호 연결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달러화'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꾸준히 '달러 보유량은 줄이고 금 보유량은 늘리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인민은행의 달러 자산 감축 규모는 총 2,800억 달러를 넘어섰다.[13] 같은 기간 중앙은행은 20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려, 2026년 6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은 7,544만 온스로 늘어났다.[14] 또한 중국은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활용해 수출입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구매자 우위를 살려 석유·가스 같은 원자재 무역에서도 위안화 표시 거래를 늘려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미국 달러의 신용이 흔들리는 지금을 전략적 기회로 포착해, '무역+금융'이라는 두 축에 디지털 기술의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독자적인 특색을 지닌 통화 국제화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일곱 가지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다. 첫째, 자본계정 개방 확대다. '제15차 5개년 계획' 말기까지, '기본 환전 가능' 및 '환전 가능' 등급[15]에 해당하는 자본계정 거래 비중을 지금의 6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경 간 투자 채널을 간소화하고, 일부 프로젝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되 금지 항목만 정해두는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을 도입하며, 주식·채권 1차 시장의 대외 개방도 확대한다. 둘째, 안전자산 확대다. 홍콩에서 5년 만기 위안화 국채 선물을 출시해 위험 회피 수단을 늘리고, 역외 위안화 표시 중국 국채를 런던청산소(LCH)의 적격 담보물 목록에 편입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자산으로 만든다. 판다채와 딤섬채 시장도 더 키워 해외 투자자에게 더 풍부한 위안화 투자 대상을 제공한다. 셋째, 역외 시장의 차별적 육성이다. 홍콩은 세계적인 역외 위안화 업무 허브 지위를 계속 다지고, 상하이는 자유무역지대에서 역외 위안화 외환 거래를 시범 운영하며 국내 기업 서비스에 중점을 둬, 두 도시가 서로 보완하는 '쌍 엔진' 구도를 만든다. 넷째, 실물경제 수요와의 연결이다. 위안화 국제화를 중국의 산업 사슬 우위와 깊이 연계해, 일대일로의 녹색(친환경) 투자·금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선 국가의 녹색 프로젝트에서 위안화 자금 조달과 결제를 확대함으로써 위안화를 실제로 쓸 지속 가능한 수요를 만들어낸다. 다섯째, 결제 인프라 손보기로, 자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CIPS의 세계적 확장을 서두르고 네트워크 효과를 넓히는 한편, mBridge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존 채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주고받는 P2P 실시간 결제를 실현함으로써 결제 효율성과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높인다. 여섯째, 지역 금융 안전망 구축이다. 아세안과 한·중·일(10+3 체제)이 함께 만든 위기 대응 자금 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위안화로 출자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두고, 여러 나라와 양자 통화 스와프 망을 넓혀 양자 무역에서 위안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달러 의존도를 낮춘다. 일곱째, 서방 중심 체제에 대응하는 병행

기구 설립이다.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 실크로드기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처럼 기존 서구 체제와는 독립된 병행 금융 기관을 세우거나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안화 또는 회원국 자국 통화로 채권 발행과 대출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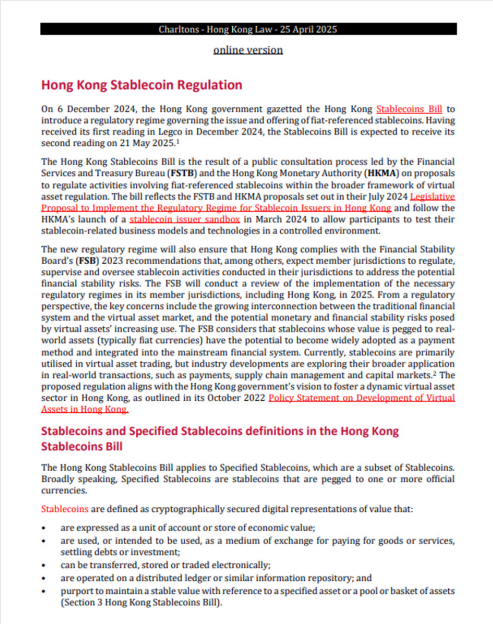
암호화폐 정책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관심을 받아왔고, 지금은 세계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이끄는 핵심 변수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대다수가 달러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USDT(테더), USDC(서클)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달러에 연동돼 있다. 이 스테이블코인들은 은행 시스템이나 SWIFT 같은 전통적인 통로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세계 어디로든 직접 파고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셈이다. 현행 국제 통화 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이 '온체인(블록체인 위에서 도는) 달러'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 맞서 중국은 뚜렷하고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큰 그림은 이렇다. 본토 안에서는 '방화벽'을 세워 위험을 차단하고, 홍콩 같은 역외 시장에서는 먼저 시범 사업을 실행해 보고,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체인 달러' 체제가 주는 충격을 상쇄하고 자국의 통화 주권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본토는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불법적인 국경 간 자금 이동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 국내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법정화폐를 가상화폐로 바꿔주는 거래소 영업이나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ICO)는 모두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된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는 국내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해외에서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못 박았고, 실물자산을 토큰으로 바꿔 거래하는 실물자산 토큰화(Real World Asset, RWA) 사업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금지된다. 다만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 특정한 금융 인프라 위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예외로 인정해, 앞으로 규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혁신이 이뤄질 여지는 남겨 뒀다.

중국 본토가 엄격하게 틀어막는 것과 달리, 홍콩은 '역외 실험구' 역할을 맡고 있다. 엄격한 규제 아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나 RWA 같은 새로운 시도를 먼저 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토와 홍콩이 서로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트랙'을 병행하는 셈이다. 홍콩은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되 '같은 활동에는 같은 위험,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라는 기존 금융에 대한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장에 들어오는 문턱을 매우 높게 세웠다. 목표는 스테이블코인을 회색

> "중국은 미국의 온체인 달러에 대응하여
> 본토에서는 방화벽에 의해 위험을 차단, 홍콩 등 역외 시장에서는
> 시범 사업을 실행, 동시에 자체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

지대에서 끌어내 정식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중국 본토의 리스크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홍콩이라는 공간에서, 중국은 앞서 규제 경험과 시장 실무를 쌓아볼 수 있는 셈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디지털 금융 경쟁 속에서, 홍콩의 정책은 홍콩 자체의 국제 금융 중심지 지위를 다지는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혁신과 안전을 함께 잡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셈이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이미 2,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16]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만들어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갖췄다. 이 조례를 통해 홍콩은 국제 규칙을 그저 따라가는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 경쟁의 판을 짜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려 하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도 있었다. 홍콩이 제때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만든 덕분에, 국제 은행들이 홍콩을 '고위험 공백 지역'으로 분류하여 최대 1,250%에 달하는 위험 가중치(은행이 특정 자산을 보유할 때 그만큼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 두게 하는 규제 장치)를 적용하는 상황을[17] 피함으로써 현지 금융기관이 국제 업무를 볼 때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 조례는 앞으로 역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발판도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돌아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SWIFT와는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결제·청산 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 역외에서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자리를 잡으면, 국경을 넘는 무역 결제나 '일대일로' 투자·금융에서 효율적이고 값싼 결제 수단이 되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큰화된 채권이나 RWA 같은 다양한 역외 투자 수단이 늘어나면, 해외로 나간 위안화가 다시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역외 시장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이는 위안화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투자·준비 통화로 커 나가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다.


Charltons - Hong Kong Law - 25 April 2025

online version

Hong Kong Stablecoin Regulation

On 6 December 2024, the Hong Kong government gazetted the Hong Kong Stablecoins Bill to introduce a regulatory regime governing the issue and offering of fiat-referenced stablecoins. Having received its first reading in Legco in December 2024, the Stablecoins Bill is expected to receive its second reading on 21 May 2025.[1]

The Hong Kong Stablecoins Bill is the result of a public consultation process led by the Financial Services and Treasury Bureau (**FSTB**) and 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on proposals to regulate activities involving fiat-referenced stablecoins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virtual asset regulation. The bill reflects the FSTB and HKMA proposals set out in their July 2024 Legislative Proposal to Implement the Regulatory Regime for Stablecoin Issuers in Hong Kong and follow the HKMA's launch of a stablecoin issuer sandbox in March 2024 to allow participants to test their stablecoin-related business models and technologies in a controlled environment.

The new regulatory regime will also ensure that Hong Kong complies with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s (**FSB**) 2023 recommendations that, among others, expect member jurisdictions to regulate, supervise and oversee stablecoin activities conducted in their jurisdictions to address the potential financial stability risks. The FSB will conduct a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ecessary regulatory regimes in its member jurisdictions, including Hong Kong, in 2025.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the key concerns include the growing interconnection between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and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the potential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risks posed by virtual assets' increasing use. The FSB considers that stablecoins whose value is pegged to real-world assets (typically fiat currencies)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widely adopted as a payment method and integrated into the mainstream financial system. Currently, stablecoins are primarily utilised in virtual asset trading, but industry developments are exploring their broader application in real-world transactions, such as payments, supply chain management and capital markets.[2] The proposed regulation aligns with the Hong Kong government's vision to foster a dynamic virtual asset sector in Hong Kong, as outlined in its October 2022 Policy Statement on Development of Virtual Assets in Hong Kong.

Stablecoins and Specified Stablecoins definitions in the Hong Kong Stablecoins Bill

The Hong Kong Stablecoins Bill applies to Specified Stablecoins, which are a subset of Stablecoins. Broadly speaking, Specified Stablecoins are stablecoins that are pegged to one or more official currencies.

Stablecoins are defined as cryptographically secured digital representations of value that:

- are expressed as a unit of account or store of economic value;
- are used, or intended to be used, as a medium of exchange for paying for goods or services, settling debts or investment;
- can be transferred, stored or traded electronically;
- are operated on a distributed ledger or similar information repository; and
- purport to maintain a stable value with reference to a specified asset or a pool or basket of assets (Section 3 Hong Kong Stablecoins Bill).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 legalink.net

홍콩의 장외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 위키피디아

중국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하는 데도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전략을 펴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 첫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것이다. 국가 신용이 뒷받침하는 디지털 위안화는 국내 소매 결제와 국경 간 시범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 무역 결제에서 달러의 주도적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평가받는다. 둘째는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mBridge를 이끄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인민은행, 홍콩금융관리국, 태국 중앙은행,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등을 연결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 하고 있다.[18] 목표는 P2P 방식으로, 저비용에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달러를 중심으로 짜인 대리은행망(코레스은행망)을 완전히 건너뛰어, 전혀 새로운 다자간 결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는 국제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같은 국제기구의 논의 테이블에서 중국은 세계적인 디지털화폐 표준과 규제 체계를 논의하는 데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 규칙에 자국의 이익과 입장을 반영하고, 새로 짜이는 규칙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것이다.

중국이 예상하는 국제 통화 체제의 미래

2026년 여러 국제 금융 포럼에서 한 가지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래 국제 통화 체제의 진로는 미국의 단극적 주도에서 벗어나, 느리지만 되돌릴 수 없이 다원적 통화가 공존하고 거버넌스가 더욱 복잡하며 디지털 기술에 의해 심도 있게 재편되는 새로운 구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 국제 통화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국제 통화 체제가 '신용 앵커'에서 '실물 앵커'로 회귀한다. '실물 앵커'는 국제 통화의 가치가 실물(금, 에너지, 전력)에 연동될 것을 요구한다. 특정 국가 정부의 신용에만 의존하는 국제 통화 체제가 초래한 무역 불균형, 통화 남발, 통화가 지정학적 무기로 전락하는 등의 혼란은 '신용 앵커' 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을 입증했다. 둘째, 국제 통화 체제의 다원적 경쟁이다. 단일 통화가 주도하는 국제 통화 체제가 어느 정도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다원화된 국제 통화 체제는 국제 통화 발행 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전 세계 각국이 위험을 분산하며, 지정학적 위험을 회피하고, 통화 패권의 '무기화'를 방지하여 국제 통화 체제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할 수 있다. 셋째, 탈중앙화 결제 체계와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결제 체계의 상호 경쟁과 상호 보완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주권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해당 국가의 통화 주권의 연장선이 될 것이다. 관련 기반 기술과 표준은 이미 강대국 간 경쟁의 새로운 영역이 됐다.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는 대부분 탐색 단계에 있지만, 이들은 국경 간 결제에 또

> "미래 국제 통화 체제의 진로는 다원적 통화가 공존하고 거버넌스가 더욱 복잡하며 디지털 기술에 의해 심도 있게 재편되는 새로운 구도로 나아가고 있어"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적인 과제는 이런 다양한 디지털화폐와 결제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여 새로운 '업무의 고립'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넷째, 국제 통화 체계는 전 세계 실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국제 통화의 발행은 국제 무역 결제 및 국경 간 투자 수요와 맞아야 하며, 국제 자본의 흐름은 정치적 편향을 줄이고 경제 법칙에 부합하며, 각국의 경제 발전 수요와 국제 분업 조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자본 이동을 장려하고, 투기적 수요에 기반한 단기 자본 이동을 줄여야 한다. 이처럼 더 공정하고 회복탄력성이 더 높은 '다원적 균형' 국제 통화 체제 구조를 구축하려면 현행 국제 통화 체제의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첫째, IMF의 할당량을 개혁하여 신흥 경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2026년 4월에 서명된 「디리야 할당량 및 거버넌스 개혁 지침」[19]의 이행을 촉진하여 '의미 있는 할당량 조정'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특별인출권(SDR)의 혁신적인 활용을 유도하여 초주권 통화의 독특한 장점을 발휘하고, 이를 준비 자산에서 개발 도구로 도약시켜, 선진 회원국의 유휴 SDR을 IMF 신탁 기금이나 다자간 개발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유도함으로써 기후 및 개발 자금 조달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 기술을 활용하여 국경 간 결제 체계를 재구축하고,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과 소매 결제 시스템 간의 상호 연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SWIFT의 블록체인 원장, mBridge 등 새로운 인프라를 활발히 모색함으로써 국경 간 결제에 더 빠른 다각화된 채널을 제공하고, 기술 및 효율성 차원에서 체계의 변혁을 추진한다.

결론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한 후, 미국은 '페트로 달러'를 통해 달러 패권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은 디지털 기술 수단을 통해 국제 통화 체제 내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주권 통화가 주도하는 준비 통화 체제에는 선천적인 결함과 모순이 존재하며, 무역 불균형, 제조업 공동화, 글로벌 시스템적 위험, 금융 패권 남용 등의 문제가 세계 경제의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국제 통화 체제는 필연적으로 '신용 앵커'에서 '실물 앵커'로 회귀하고, '달러의 독점'에서 '다원적 공존'으로 진화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국제 준비 통화 경쟁에 새로운 무대를 마련해 줬으며, 관련 인프라 구축과 규칙 제정은 다원적 경쟁, 패권 반대, 자율적 평등,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이 경제력에 걸맞은 통화 자율권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위안화는 다른 주요 주권 통화들과 함께 전 세계 경제·무역 교류를 위한 금융 공공재를 제공하며,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할 것이다.

> "국제 통화 체제는 필연적으로
> '신용 앵커'에서 '실물 앵커'로 회귀하고,
> '달러의 독점'에서 '다원적 공존'으로 진화할 것"

참고문헌

1 财富中文网. “美国国债正式突破39万亿美元.” 2026.5.26.
https://www.fortunechina.com/shangye/c/2026-05/26/content_474198.htm

2 腾讯新闻 등. “卖债筹钱！全球央行大砍美债持仓.” 2026.3.31.
https://view.inews.qq.com/a/20260331A04E6E00

3 新浪财经. “黄金, 又‘破纪录’.” 2026.6.5.
https://finance.sina.com.cn/wm/2026-06-05/doc-iniaiyyn2801866.shtml

4 新浪财经(欧洲中央银行·ECB 보고서 재인용). “历史性时刻！黄金超越美债, 登顶全球最大储备资产.” 2026.6.3.
https://finance.sina.com.cn/money/fund/jjgsgd/2026-06-03/doc-iniacxkk4021913.shtml

5 中文维基百科. “人民币跨境支付系统.” 2025.12.6.
https://zh.wikipedia.org/zh-hans/人民币跨境支付系统

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第三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主席声明.” 2023.10.18.
https://www.mfa.gov.cn/ziliao_674904/1179_674909/202310/t20231018_11163400.shtml

7 Trade Treasury Payments. “USD Dominates the Global Currency and Trade Finance Market: SWIFT’s Global Currency Tracker June 2026.” 2026.6.23.
https://tradetreasurypayments.com/articles/usd-dominates-the-global-currency-and-trade-finance-market-swifts-global-currency-tracker-june-2026

8 潘功胜. “关于全球金融治理的若干思考——在2025陆家嘴论坛上的主题演讲.” 2025.6.18.
http://m.safe.gov.cn/safe/2025/0618/26220.html

9 국제통화기금(IMF).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COFER).” data.imf.org.
https://data.imf.org/en/datasets/IMF.STA:COFER

10 跨境银行间支付清算有限责任公司(CIPS). “参与者公告(第一百一十七期). 2026.4.9.
https://www.cips.com.cn/

11 网易. “中国牵头的跨境数字货币平台mBridge交易额激增至逾550亿美元.” 2026.1.18.
https://www.163.com/dy/article/KJIOM48I0511BLFD.html

12 “人民币全球使用情况被低估？这些数据一晒，真相了.” 2025.10.24.
https://jnzstatic.cs.com.cn/zzb/htmlInfo/106973.html

13 腾讯新闻(재인용: 美国财政部 국제자본데이터·TIC). “中国持续减持美债累计超2800亿, 震慑美国关税政策.” 2025.11.24.
https://news.qq.com/rain/a/20251124A044FQ00

14 观点网(인용: 中国人民银行·国家外汇管理局 공식 데이터). “央行连续第20个月增持黄金 6月环比增加48万盎司.” 2026.7.7.
https://www.guandian.cn/article/20260707/571747.html

15 중국의 자본계정 개방 정도를 나타내는 4단계 분류 체계에서 온 용어. “환전 가능 > 기본 환전 가능 > 부분 환전 가능 > 불가” 순이며, 이 중 환전 가능은 사실상 문턱이 없는 상태로 외환 당국에 별도로 승인이나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고, 기본 환전 가능은 승인(核准)이나 등기(登记) 절차는 있으나 형식적 성격에 가까워, 전체적으로 제약이 많지 않은 단계.

16 The Block. “Stablecoin Market Capitalization Surpasses $250 Billion Amid Accelerating Regulatory Momentum.” 2025.6.2.
https://www.theblock.co/post/356545/stablecoin-market-capitalization-surpasses-250-billion-amid-accelerating-regulatory-momentum

17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BIS).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 2022.12.
https://www.bis.org/bcbs/publ/d545.htm

18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Project mBridge Reached Minimum Viable Product Stage.” 최종 수정 2024.11.11.
https://www.bis.org/about/bisih/topics/cbdc/mcbdc_bridge.htm

19 IMF. “Diriyah Guiding Principles on IMF Quota and Governance Reforms.” 2026.4.17. 신흥국과 개도국(EMDEs)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쿼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

우크라이나의 '후방 공세'
러시아는 흔들리고 있는가?

임명묵 국제정치평론가

2025년 8월 15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어느덧 1주년을 앞두고 있다.[1] 당시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종전안 수용을 압박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출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6년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런 기대는 빠르게 실망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6년 3월 중동에서 발발한 이란 전쟁과 맞물려 한층 더 격화하며 세계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시 고개를 든 '러시아 위기론'

특히 우크라이나가 전개하는 러시아 후방 인프라 겨냥 공세는 전쟁의 변곡점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6월 16일 모스크바 동남부의 가스프롬네프트 정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은 데 이어 6월 18일 같은 시설이 재차 공격당하면서, 러시아 수도권에도 전쟁의 부담이 직접 전가되기 시작했다.[2] 7월에는 후방 공세가 훨씬 더 격렬해졌다. 7월 6일에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서 약 2,700km 떨어진 시베리아 옴스크의 러시아 최대 정유 시설을 타격했다.[3] 옴스크 타격 이후

> “7월 내내 우크라이나가
> 러시아 전국 각지의 정유 시설을 타격하며
> ‘러시아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어”

7월 내내 러시아 전국 각지의 정유 시설 타격이 이어지며 ‘러시아 위기론’이 점차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정유 시설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근에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와일드베리의 물류 창고 등 공세 범위를 후방 물류망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4] 특히 광대한 국토가 완벽한 방공망으로 방어되기는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후방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후방의 불안정은 전선에서 거두는 저조한 성과와도 맞물려 있다. 2025년 말까지 러시아는 도네츠크의 산업 중심지이자 교통 요충지인 포크롭스크(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를 점령했고, 여세를 몰아 자포리자의 굴랴이폴레까지 확보하며 상당한 전과를 거뒀다. 그러나 2026년에 들어 상황은 다시 반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방면에 반격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한 데다, 우크라이나가 사수하고 있는 도네츠크 요새 지대 역시 여전히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2026년 7월까지 전개된 전황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추구하는 작전적·전략적 목표를 보여준

2026년 6월 18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모스크바의 카포트냐 정유 공장 ⓒ 위키피디아

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통해 영토를 수복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방어선을 유지하며 러시아에 지속적인 출혈을 강요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이 서방의 군사·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서사를 서방 여론에 꾸준히 제공하는 것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출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다. 전쟁 수행 능력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문제와 영국·프랑스의 안보 보장 문제 등을 일단 회색지대로 남겨둔 채, 군사력을 재건할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의 협상 조건에 따른 종전안을 완고하게 고수하고 있다.[5]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전선의 전황을 뒤집기보다는 후방 사회를 압박해 러시아의 전쟁 지속 의지를 약화하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정유 시설 타격을 비롯한 후방 공세는 전쟁 내내 전방과 후방을 철저히 분리하고, 전선의 사건이 후방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여론을 관리해 온 러시아 정부의 전략을 정면으로 흔드는 시도였다. 결국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 사회의 전쟁 피로감과 반발 여론을 키워 러시아의 협상 태도에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후방 정유 시설 타격은 러시아 사회에 실제로 어느 정도 압박하고 있을까? 적어도 러시아 내부에서 유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후방 사회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짙게 드리워졌음은 명확하다. 러시아 주요 지역은 물론이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심지에도 연료 사재기를 위해 주유소에 길게 줄이 늘어섰고, 각지에서 유류 대란을 막기 위해 배급제가 도입되는 등 시민의 일상에 심대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6] 이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속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전환될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다.

2026년 7월 2일 연료 위기로 칼리닌그라드의 한 주유소 앞에 형성된 차량 대기 행렬 ⓒ 위키피디아

> “러시아 정부는 유류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러시아 정부의 신속한 위기 대응

하지만 그렇다고 4년 이상 전쟁을 지속해 온 러시아 국가가 아무런 대응 수단도 없이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러시아 정부가 유류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며 위기에 적응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연료 공급 통제였다. 정부는 이미 4월부터 휘발유 수출을 금지해 국내 물량을 확보해 왔고, 국내 소매 단계에서도 1회 주유량 상한을 설정했다. 판매 제한 조치는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했지만, 심리적 공황에 따른 사재기와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 시행된 긴급 조치였다.[7] 공급 통제로 시간을 확보한 러시아 정부는 이후 생산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들을 일종의 완충 장치이자 비용 전가의 통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수입을 늘려 긴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8]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로 향하던 수출 물량도 재고 확보 목적으로 러시아 국내로 방향을 전환했다.[9] 여기에 정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예정된 정유 시설 정기 보수를 연기해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했으며, 인도와 모로코 등 제3국으로부터 휘발유를 수입해 추가 물량도 확보했다.[10] 이와 함께 연방 기관과 지방정부, 업계를 묶은 상시 대응 체제를 가동해 지역별 수급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등 6월과 7월 내내 러시아 국가 기구는 에너지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행정 역량을 투입했다.

러시아 정부의 신속한 대처는 정유 시설이 계속 피격되는 와중에도 효과를 봤다. 6월 말 30여 개 지역에 도입된 전면적 판매 제한은 7월 들어 단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유류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크림에서는 11일부터 99개 주유소에서 자유 판매가 재개됐다.[11] 정유사들의 움직임도 이어져 루코일과 가스프롬 역시 여러 지역의 자사 주유소에서 구매 한도를 없앴다.[12] 그리고 7월 28일에는 3주 전 정유 시설에 치명타를 입은 옴스크가 주 차원의 판매 제한을 전면 해제한 러시아 최초의 지역이 됐다.[13] 물론 이 모든 지표는 전체적 정상화보다는 부분적 회복을 가리키지만, 우크라이나가 7월 내내 정유 시설 타격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새로운 제한 조치가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에 러시아의 연중 유류 소비가 7월과 8월에 정점을 찍고 가을부터 하락한다는 사실도 고려하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가 연료 파국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고 짐작할 근거가 많다.[14]

게다가 여태까지는 우크라이나의 후방 공격이 러시아 사회에서 대대적인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원래부터 전쟁에 반대했거나 전쟁의 존재 자체를 일상에서 지워두려 했던 시민들에게는 이번 공격이 새로운 불만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할 만큼 조직화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폭발적인 반전 여론이 형성되기보다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이 조용히 누적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러시아 사회에는 정부가 제시한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적지 않다. 애국주의 성향이 강한 시민들뿐 아니라 참전자 네트

워크와 전쟁 특수를 누리는 산업계도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공적 공간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오히려 특수군사작전의 틀을 넘어 법적으로 명확한 전시 체제로의 전환이나 더 강경한 군사작전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2022년 9월 부분 동원령 당시 사회적 반발이 크게 나타났던 것처럼, 추가적인 전시 동원이 러시아 국가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안기며 정세를 급변시킬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론 차원에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본질적으로 약화했다고 볼 근거는 충분치 않다.[15]

러시아 전쟁 수행의 핵심 동력인 재정 문제에서도 정유 시설 타격은 실질적인 손상을 주지 못했다. 정유 시설 타격은 국내 소비용 휘발유 부족을 초래해 민심 이반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국가 기구를 운용하고 특히 전선의 계약병에게 막대한 고임금을 지급하는 재원은 정유업계가 아니라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에서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흑해의 노보로시스크 항만으로 확대되면서 러시아 최대 원유 터미널인 셰스하리스가 7월 21일 이후 선적을 중단하는 등 원유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란 전쟁이 만들어준 재정적 여유가 이를 상당 부분 흡수해 주고 있다.[16] 6월 17일 이란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MOU)가 7월 초 사실상 파기되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다시 급감했고, 러시아산 원유는 현재 세계 에너지 위기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완충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란 전쟁 직전 최저점에 도달했던 러시아의 석유·가스 재정 수입은 급격히 반등했고, 호르무즈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은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여전히 전장을 주도하는 러시아

그렇다면 논의의 초점은 다시 전장으로 이동한다. 2026년 7월까지 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6년에 러시아가 전장에서 얻은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방측에서는 당시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드론 혁신을 통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우크라이나전 분석의 주요 출처로 여겨지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하거나 침투한 면적은 40.64㎢로 전년 동기 515.84㎢의 7.87%에 그쳤으며, 4월에는 월 단위로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6년에 발생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전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였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야전은 소규모 부대가 드론으로 상대를 정찰·타격하고, 전투원과 후방이 실시간으로 막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무대다. 이런 전장 환경 속에서 러시아군은 어쩔 수 없이 자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통신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었다. 미국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스타링크와 러시아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텔레그램이 대표적이었다. 최근 러시아군은 이런 인프라 의존이 명시적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2026년 2월 1일 머스크가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속을 막자 러시아 전투병 통신에 큰 혼선이 찾아온 것이다. 여기에 2월 10일부터 시행된 러시아 정부의 텔레그램·왓츠앱 차단 정책도 전투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스타링크와 텔레그램이 갑자기 사라지자, 일선 전투원들은 통신 영역에서 뜻밖의 장애를 마주하며 힘겨운 전투를 이어가야만 했다.[18]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5월 18일 의회 보고

러시아 저궤도 위성통신망 '라스베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뷰로1440(Bureau 1440)의 로고 ⓒ 위키피디아

서에서 러시아군이 스타링크 통신망을 상실하면서 전선에서 일시적이나 상당한 전술적 손실을 봤다고 분석했다.[19] 전장의 통신 장애는 2026년 들어 러시아군이 자포리자·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방면에서 진격이 둔화하고 우크라이나 측의 공세에 일부 점령지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런 통신 장애를 극복 가능한 일시적 문제로 보고 빠르게 적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링크 대체망의 자체 구축이다. 러시아는 2026년 3월 자국산 저궤도 위성통신망인 라스베트(Rassvet)의 첫 양산형 위성 16기를 발사한 데 이어, 7월에는 두 번째 발사를 실행했다.[20] 장기적으로는 수백 기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통신 전환 과정에서 각종 불편과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난 수년간 핵심 전략 부문의 국산화에 꾸준히 성공해 온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라스베트와 기타 대체 메신저를 기반으로 러시아 보병의 야전 작전 역량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러시아군은 통신 장애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7월 4일 돈바스의 핵심 요새 도시인 콘스탄티놉카를 장악했다고 발표했다.[21] 전쟁 이전 인구 약 6만 7천 명 규모였던 콘스탄티놉카는 넓은 시가지와 장기간 구축된 방어 시설로 인해 공략 난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었으며, 슬로뱐스크·크라마토르스크 방어권의 남측 관문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컸다. 러시아군은 활공폭탄과 포병 화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거점을 지속해서 마모시키고, 소규모 돌격조를 반복 투입해 시가지를 단계적으로 점령하는 기존의 도시전 방식을 이곳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같은 시기 러시아군은 슬로뱐스크·크라마토르스크 방어선의 북쪽과 서쪽에서도 점진적인 전진을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자산이 집중된 돈바스 요새 지대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는 앞서 인용한 점령 면적 수치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작전적·전략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후방에 가하는 공습 역시 단계적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2026년 봄부터 우크라이나의 주유소 자체를 체계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다. 7월 24일에는

> "러시아군이 7월에 점령한 콘스탄티놉카는 슬로뱐스크·크라마토르스크 방어권의 남측 관문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커"

도네츠크 전선의 마지막 주요 요새 지대(붉은 원)와 남부 관문인 콘스탄티놉카(파란 원) ⓒ 위키피디아

키이우 인근의 한 훈련장에서 열리던 무인기 산업 전시회가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 주요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22]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격은 흑해 해상에서 이뤄졌다. 러시아는 7월 11일부터 오데사·초르노모르스크·유즈니·이즈마일 등 우크라이나 항만 시설을 사실상 매일 타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7월 29일에는 미콜라이우 항만 시설과 오데사·초르노모르스크로 향하던 화물선 두 척을 타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흑해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주는 부담은 절대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최대 외화 수입원인 곡물과 식용유 등 농산물 수출은 90% 이상이 오데사주의 세 항만을 통해 선적되는데, 7월의 집중 타격으로 이미 곡물 수출 역량의 3분의 1가량이 상실된 것으로 평가된다.[23] 따라서 러시아가 흑해 봉쇄에 성공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외화 수입과 재정 기반을 추가로 잃으며 전쟁 수행 역량에 또 다른 타격을 입게 된다.

7월의 사건들을 종합하면 러시아의 전쟁 방정식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유 시설 타격과 유류 대란은 분명 중대 사건이었으나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급한 위기를 넘기는 데 성공했다. 후방에서의 사회적 피로도 분명 증가했으나 전쟁 수행 여론을 반전시킬 기미는 아직 관측되지 않는다. 통신 장애로 야전 수행의 난항도 커졌지만, 적응 노력은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 중이다. 결정적으로 돈바스 전역을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로 관리하면서 압도적 화력으로 장악해 나간다는 전쟁 수행의 기본 공식이 유지되고 있다. 후방 압박을 완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러시아는 슬로뱐스크·크라마토르스크 방면으로 공세를 이어가며,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을 유도하고 인프라와 재정을 잠식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회의 전쟁 수행 의지까지 흔들고자 할 것이다. 2024년 2월 압데옙카 함락 이래 2년 반 가까이 지속되어 온 공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위기?: 지휘부 갈등에서 강제 징집 반대 시위까지

오히려 종종 간과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신호들이다. 7월에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부 장관이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와 군 지휘 및 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 끝에 경질됐고, 이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그의 복귀와 군 개혁의 지속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우에 이어 시르스키까지 경질하고 미하일로 드라파티를 신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24] 이런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국방부와 총참모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지휘 체계를 둘러싼 충돌로 이해된다. 갈등의 이면에는 드론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과 참호전·요새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작전 개념 사이의 긴장이 자리하고 있다.[25]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도부 내부에서 전쟁 수행 방식과 군 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상당한 수준까지 표면화됐음을 보여준다. 반면 러시아는 같은 시기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부 장관 체제를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어, 양국 지휘부의 안정성과 전쟁 수행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7월은 우크라이나 민간 사회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난 시기였다. 7월 8일 저녁 우크라이나 서부의 르비우에서 징집 담당 부대가 수배 중이던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시민 약 200명이 몰려들어 충돌이 벌어졌고, 군중이 징집사무소 차량을 전복하기까지 했다.[26] 징집관의 거리 강제 징집에 시민들이 저항하는 장면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공개됐지만, 르비우 사건은 이런 불만이 집단적 충돌 형태로 표출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는 2022~23년 우크라이나 사회를 지탱했던 자발적 애국주의와 전시 동원의 동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물론 르비우 사건 역시 일회성에 그치고 전쟁 피로 여론이 정치적 행동으로 더

2026년 7월 우크라이나 정부의 페도로우 국방부 장관 해임 결정에 항의하는 키이우 시민들 © 위키피디아

> “7월을 거치며 협상을 통한 출구 마련보다는 추가적 격화의 여지가 커져”

확산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러시아가 슬로뱐스크·크라마토르스크 방면 공세를 본격화하여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병력 소모를 계속 강요할 경우, 흑해 봉쇄와 후방 공습에 더해 병력 압박까지 누적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가 후방 공습을 통해 러시아 사회의 전쟁 비용을 높여 협상력을 약화하려 한다면, 러시아 역시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과 소모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약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양측은 상대 사회의 지구력을 겨냥한 소모전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구조적 변화가 관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7월의 전황은 협상을 통한 출구 마련보다는 추가적 격화의 여지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의 후방 공세는 러시아에서 전쟁 피로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촉구하는 여론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로서는 후방 공세에 계속 집중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 7월 25일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카스피해에서 이란과 러시아를 오가는 군수 수송 선박을 공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직접 연계되는 위험천만한 상상까지 등장했다.[27] 물론 격화 가능성은 양측의 위험 회피 유인을 높이는 압력이 되기도 한다. 7월 2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가 전쟁 종식 노력의 일환으로 개전 이후 처음으로 키이우를 방문하는 데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8] 한편, 7월 9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게재된 러시아 기업인 안드레이 멜니첸코의 기고문과 인터뷰는 러시아 역시 공식 외교 바깥에서라도 협상 조건을 발신하는 창구를 계속 원한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다.[29]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중순부터 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마저 확대되고, 양측의 에너지·물류·인프라 공격이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도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확한 관찰과 분석이 중요하므로 2026년 하반기에도 자극적인 보도 이면의 전황은 물론 양측의 정치와 사회까지 주의 깊게 살피며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계속 요구될 것이다.

---

1 “러·미 알래스카 정상회담: 러시아의 시각.”
https://www.rioins.kr/news/news__list.html?bmain=view&uid=9&search=%26page%3D2

2 “푸틴 코앞 또 뚫렸다…모스크바 정유시설 연이은 드론 공격.”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618601023

3 “시베리아도 뚫렸다…우크라 드론 공습범위 확대에 러시아 ‘당혹’.”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0120000009

4 “‘러시아판 아마존’ 때린 우크라 드론…“러 중산층도 전쟁 체감”.”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4031800009

5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전망과 젤렌스키 정부의 내부 위기.”
https://www.rioins.kr/news/news__list.html?bmain=view&uid=14&search=%26page%3D1

6 “우크라 드론에 러 정유시설 초토화… “푸틴, 연료 대란에 정치 위기”.”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552246645510584

7 “Главные заявления Новака об ажиотаже на рынке топлива и мерах властей.”
https://www.vedomosti.ru/economics/articles/2026/06/26/1209090-ob-azhiotazhe

8 “Белоруссия направила на рынок РФ рекордный объем бензина и дизтоплива в июн --источники.”
https://ru.themoscowtimes.com/2026/07/09/belorussiya-napravila-na-rynok-rf-rekordnyy-obem-benzina-i-diztopliva-v-iyune-istochniki-a200384

9 “Кыргызстан на фоне дефицита топлива в России ведет переговоры о поставках ГСМ с Казахстаном, Беларусью, Азербайджаном 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https://www.currenttime.tv/a/kyrgyzstan-toplivo-peregovory/33793266.html

10 “Россия впервые импортировала бензин АИ-92 из Марокко.”
https://neftegaz.ru/news/Trading/931638-rossiya-vpervye-importirovala-benzin-ai-92-iz-marokko/

11 “В Крыму и Севастополе началась свободная продажа бензина и солярки на АЗС.”
https://rg.ru/2026/07/11/reg-ufo/v-krymu-i-sevastopole-nachalas-svobodnaia-prodazha-benzina-i-soliarki-na-azs.html

12 “Ну вот и все: в каких регионах начали снимать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родажу бензина и дизеля.”
https://finance.mail.ru/article/nu-vot-i-vse-v-kakih-regionah-nachali-snimat-ogranicheniya-na-prodazhu-benzina-i-dizelya-69219723/

13 “В Ом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ностью сняли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отпуск бензина и дизеля.”
https://superomsk.ru/news/164064-xotsenko_zayavil_o_snyatii_limitov_na_toplivo_v_om/

14 “Топливный кризис: эксперт объяснил, когда закончится дефицит бензина.”
https://ura.news/news/1053108602

15 여론 지표에서 정부 지지율 하락 추세는 분명하게 관측된다. 친크렘린 성향의 사회여론재단(FOM) 조사에서는 7월 10~12일 푸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6%로 2022년 2월 이후 처음 70%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전쟁 피로 여론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확대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여전히 과장에 가깝다. “Рейтинг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продолжают снижаться — опрос ФОМ.”
https://eadaily.com/ru/news/2026/07/17/reytingi-vladimira-putina-i-pravitelstva-rossii-prodolzhayut-snizhatsya-opros-fom

16 “How Much Has the Russian Budget Gained from Iran-War-Related Higher Oil Prices?”
https://www.bruegel.org/first-glance/how-much-has-russian-budget-gained-iran-war-related-higher-oil-prices

17 “Russian Offensive Campaign Assessment, June 1, 2026.”
https://www.criticalthreats.org/analysis/russian-offensive-campaign-assessment-june-1-2026

18 “«Слепые котята»: как отключение Starlink и блокировка Telegram влияют на ситуацию на фронте?”
https://www.trtrussian.com/article/a20423205e02

19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Operation Atlantic Resolve: Quarterly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January 1–March 31, 2026.”
https://www.stateoig.gov/report-325

20 “Новая высота: Бюро 1440, вероятно, снизило целевую орбиту.”
https://www.comnews.ru/content/246485/2026-07-21/2026-w30/1007/novaya-vysota-byuro-1440-veroyatno-snizilo-celevuyu-orbitu

21 “Минобороны раскрыло подробности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нстантиновки.”
https://ria.ru/20260704/konstantinovka-2102750490.html

22 “Армия РФ ударила по выставке оружейников в Киевской области, есть погибшие.”
https://gordonua.com/section-war/news-rf-vdaryla-po-vystavtsi-zbroyariv-v-kyyivskiy-oblasti-ye-zahybli-24-07-2026.html

23 “Ukraine’s Black Sea Ports Lose a Third of Grain Export Capacity, Farmers’ Union Says.”
https://www.reuters.com/world/ukraines-black-sea-ports-lose-third-grain-export-capacity-farmers-union-says-2026-07-15/

24 “Zelensky Dismisses Commander-in-Chief Syrskyi after Widespread Protests, Appoints Drapatyi.”
https://kyivindependent.com/breaking-zelensky-dismisses-commander-in-chief-syrskyi-amid-widespread-protests/

25 “Ukraine’s Syrskyi: ‘I created Unmanned Systems Forces, but you cannot switch a million-strong army to drones in two months’.”
https://www.pravda.com.ua/eng/news/2026/07/20/8045029/

26 “What the Lviv Draft Riot Tells Us about Ukraine’s Struggle to Send Men to Fight.”
https://www.france24.com/en/europe/20260714-what-the-lviv-draft-riot-tells-us-about-ukraine-struggle-send-men-fight

27 “우크라가 이란을 때렸다…새로운 전쟁터로 떠오른 카스피해 [밀리터리노트].”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europe/2026/07/26/20260726500086

28 “Уиткофф и Кушнер впервые согласились посетить Киев.”
https://www.kommersant.ru/doc/8847244

29 “A Top Oligarch Breaks His Silence.”
https://www.economist.com/1843/2026/07/09/a-top-russian-oligarch-breaks-the-silence

마리야 오세트로바 박사
러시아 속 '코레야'를 진단하다

김현택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명예교수

러시아 속 '코레야(코리아)' 열기가 뜨겁다. 출발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러시아 한류는 몇 단계를 거쳐, 지금은 러시아인들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스며드는 중이다. 한국 콘텐츠를 재미 삼아 즐기다가 비즈니스에 뛰어들어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한국을 배경으로 신화 속 동물, 한복, 전설 등이 등장하는 판타지 소설을 발표하는 젊은 러시아 작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젊은 세대 여성의 하위문화로 존재하던 한류가 주류문화의 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한국학 연구자들의 활약 또한 돋보인다. 전통적 강세를 보이던 정치·경제나 국제관계 분야 외에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삶을 깊이 있게 다루는 미술사, 음식문화, 민속학 등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 북·러 간 인문 교류도 점차 확대 중이다. 한류 열기에 비할 바는 아니어도 러시아에는 현재 두 개의 '코레야'가 움직이고 있고, 현지 학자들에게는 두 대상을 함께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고 있다. 한국 내 러시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들한 상황이지만, 우리 연구자들이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일에 나서야 할 때다.

지난 7월 초, 한옥마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으로 전주에 머물고 있는 한국학 연구자 마리야 오세트로바 박사를 만났다. 한국 음식문화 전문가로, 두 나라 사이의 문화·예술 및 인문 교류의 현장 활동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코레야' 읽고, 쓰다」라는 텔레그램 채널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 소속의 오세트로바 박사를 만나, 러시아 한류의 최근 양상에 관한 전문가의 분석, 한류 자산을 활용한 양국 간 협력 잠재력, 특히 양국 젊은 세대 학자들을 위한 협업 및 공동연구 진작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현장 연구의 중요성을 이번에 새삼 확인했다는 오세트로바 박사의 얘기를 한국의 러시아학 연구자들도 새겨들었으면 싶다. 인터뷰는 전주의 독지가 한인석 선생이 제공한 한옥마을 인근 숙소에서 진행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전통 목각 작품 앞에서 ⓒ RIO

이번 전주 방문의 목적은?

연구하는 나라를 방문해서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거리를 거닐고, 서점에 들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는 있어도, 현장의 직접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해석하는 작업과 달리, 내가 연구하는 한국의 참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올 때마다 정동 구 러시아 공사관 터를 찾아 오래전 고종 황제와 카를 베베르 공사 사이의 교류, 구한말의 양국 관계 등을 되새겨 보곤 한다. 국제 환경이 변했어도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여전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속 연구 기관의 명칭이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로 바뀌었다. 어떤 배경이 있는가?

연구소 산하에 캅카스.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을 연구하는 다양한 센터들이 설립된 것이 첫째 이유다. 전통적 관심 분야였던 극동 지역을 포함해서 현대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소로 탈바꿈했다. 연구 대상 지역의 확대와 함께 신진 연구 인력들이 많이 합류했고,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적용하는 추세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또 연구소 이미지를 일신한다는 취지에서 명칭 개편이 이뤄진 걸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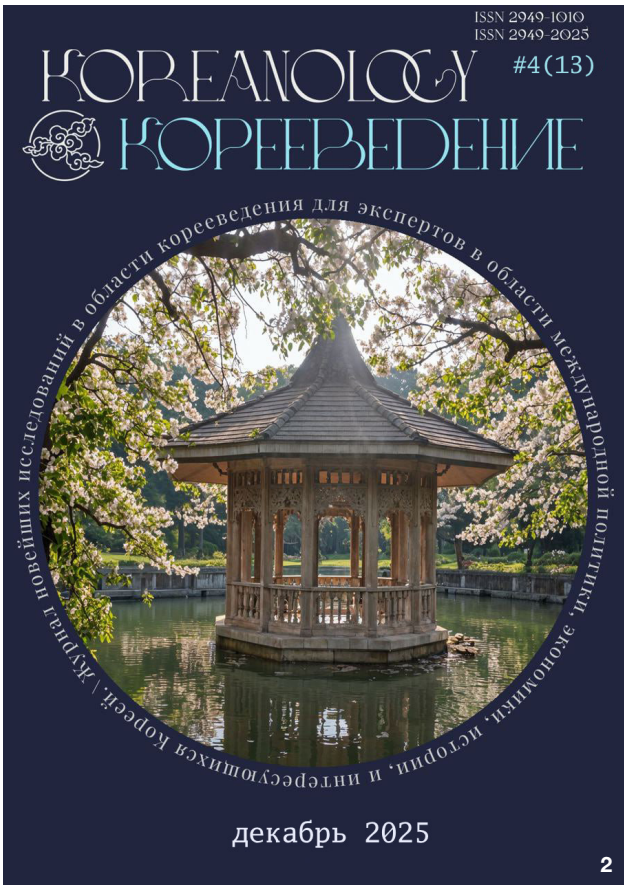
연구소 내에 남한과 북한을 함께 연구하는 센터가 있다.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나?

경제학자 빅토리야 삼소노바가 센터장으로 있고, 연구원 숫자가 늘어 현재는 12명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나는 중간 세대에 속한다. 현재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편이다. 고대 역사나 문헌학, 어문학 같은 세부 분야는 다루지 않고,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 등을 주로 연구한다. 문화 분야는 주로 내가 담당하고 있고, 러시아와 한반도 양쪽 국가와의 인문 교류 자료를 수집하

면서 논문을 쓴다. 러시아와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주로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서로에게 왜 중요한지, 상호 소통과 이해의 장애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1996년부터 러시아와 CIS 국가 출신 한국학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일은 우리 센터의 전통이 됐다. 그 사이 러시아의 남·북한 연구가 어떤 궤적을 그려왔고, 최근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 논문집을 보면 훤히 드러난다.

우선 한류 얘기부터 나눴으면 한다. 러시아 한류의 확산 과정을 전문가 관점에서 단계별로 구분한다면……

1990년 대 후반에 시작된 한류는 초기에는 아시아, 일본, 중국 등 인접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미국에서 얼마간 인기를 얻을 무렵 러시아에서도 일부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첫 단계의 러시아 한류는 청소년, 특히 여학생과 여대생들 사이에서 주목받던 일종의 하위문화다. 그 외의 사람들은 한류를 몰랐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던 단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한류 열기가 뜨거워졌다. 한국이라고 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가전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등을 떠올렸는데, 어느 시점부터 식료품, 화장품, 영화, 드라마, K-팝 등 다양한 요소가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다. 젊은이끼리 즐기던 하위문화가 주류로 진입한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력을 갖춘 성인 여성 한류 팬이 상당수에 달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여행한다. 한 번 방문으로 끝이 아니고 한류는 지속적인 여가 활동이자 취미이고, 한국 문화는 이들에게 열광의 대상이 됐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습자가 다수 등장



1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 로고 ⓒ 위키피디아
2 연구소에 발간하는 한국학 전문 학술지 표지 ⓒ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

> “가장 최근의 네 번째 단계는 취미 수준을 넘어 한류 열풍과 관련된 활동을 매개로 새로운 인생 경로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한 단계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상황”

한 것은 전에 없던 현상이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이름을 줄줄이 대고,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할 뿐 아니라, 개개인의 특징까지 꿰는 러시아 할머니 이야기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을 정도다. 가장 최근의 네 번째 단계는 취미 수준을 넘어 한류 열풍과 관련된 활동을 매개로 새로운 인생 경로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한 단계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상황이다.

네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다.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주의 휴양도시 겔렌지크에 사는 한 여성이 있다. 회사 직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던 그녀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재미 삼아 한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개최한 김치 축제에 참가한 후 자신감이 생겨서 작은 요리 공방을 열었고 이 일이 번창하면서 현재는 주업이 됐다. 다양한 김치와 한국식 소스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가로 변신한 거다. 치코(CHICKO)라는 상호로 한국 길거리 음식 체인점을 운영하는 세르게이 레베데프는 한국 드라마 팬도 아니었고,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연히 맛을 본 치킨에 반해서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일궜다.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사람이 러시아인들을 위한 한국 관광 서비스에 뛰어든 경우도 있다. 한국행 여행자 그룹을 모집해서 함께 여행하며 직접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 전문 여행사를 차려 규모를 키우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던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여행업이 본궤도에 올랐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한류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경우는 많고 또 다양하다.

겔렌지크의 김치 전문가 엘레나 세르듀코바 강연 안내문 ⓒ gastroport-adler.timepad.ru

최근 러시아 내 한류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동의하나?

특정 업종의 매출이 감소했을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침체 기미는 전혀 못 느낀다. 한류가 식상해서 이제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건 일부 사람의 착각에 불과하다. 작년에는 러시아에서 직접 소주를 제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내가 깜짝 놀랐다. 소주는 한국에서 마셔본 경험이 없으면 굳이 러시아에서 찾을 이유가 없는 특별한 술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술을 즐기려면 한국적 분위기나 한국식 안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모스크바의 어느 가게에 가든 한국식 디자인의 병에 담긴 소주가 팔리고 있으니 뜻밖이었다. 매장의 좋은 위치에 진열된 소주를 보고, 점원에게 도대체 누가 사 가느냐고 물었더니, 주로 젊은 여성들인데 진열된 매대를 하도 묻기에 바로 눈에 띄는 위치로 옮겨 놨다고 했다. 다양한 칵테일을 만들어 근사한 한국식 파티를 연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생활양식의 등장은 한국을 연구하는 나한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소주의 인기가 이 정도이다 보니, 모스크바 남쪽 칼루가 인근의 공장과 시베리아의 러시아 생산 설비에서 직접 생산을 시작했고, 가격도 낮아졌다.

러시아 현지 생산 소주 © asg.ru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여러 비우호국 중에서 한국을 대하는 러시아인들의 시선이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 레바다 센터의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러시아 국민이 지목한 비우호국 순위 20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왜 그렇다고 보나?

한류 현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동료와 의견을 나눴는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한류 팬을 비롯해 한국에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한국 방문 경험이 있거나,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 등)은 무슨 이유인지 정치 상황과 대중문화를 연결 짓지 않고 있다는 거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그것이 한국에 대한 이들의 태도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아는 어떤 젊은 여성은 전쟁에 참가 중인 친척이 있다. 가족을 통해 정치·군사적 상황과 직접 연결돼 있고 전장에 있는 친척을 열렬히 응원하지만, 그녀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한국을 여행하는 건 별개의 일이다. 한국제 립스틱을 사용하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일과 한국이 비우호국 명단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별도의 영역인 셈이다. "한국이 유럽 국가

> "한국제 립스틱을 사용하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일과
> 한국이 비우호국 명단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 서로 간섭하지 않는 별도의 영역인 셈"

에 무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거나 "한국이 그곳에 어떤 군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은 러시아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예민한 이슈지만, 일반 대중은 잘 모르는 내용이다. 사실 러시아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이 크게 노출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한국 관련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 편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 언론은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여과되지 않은 채로 자주 보도하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한류 콘텐츠가 러시아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나?

나이가 많은 세대에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경제 및 행정 아카데미 소속 사회학자 마리나 카시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한국학 전공자는 아니고 설문과 인터뷰, 여론조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젊은 연구자인데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때로는 도발적인 질문을 포함한다. BTS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BTS, 선인가 악인가?'라는 항목을 제시했다. 이 아이돌 그룹이 주는 긍정적 메시지로는 어려움 속에서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래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다른 나라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한국을 일방적으로 미화시키는 현상, 드라마 속 한국을 현실로 착각한 나머지 한국의 실제 모습과 평범한 한국인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류가 러시아 젊은 세대의 자기 계발, 자신에 대한 믿음, 성취를 위한 노력 등의 측면에서는 유익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지나치게 상업화된 한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같다. 신자유주의적 소비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하는 내용의 한국 도서들은 러시아 출판사에서 출간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적 삶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등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 남한과 북한의 음식문화를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체제의 음식 문화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

양쪽 음식문화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있다. 나는 음식을 하나의 문화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요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민족적 의미를 요리에 부여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공통점부터 말하자면, 남한과 북한 모두 자신의 음식문화를 큰 자랑으로 삼는다. 미술이나 건축 못지않게 음

인터뷰 중인 마리야 오세트로바 ⓒ RIO

식도 소중하다. 따라서 고유 음식을 보존하고 연구하며, 또 이를 지키면서 홍보해야 할 중요한 국가적 유산으로 보는 것이다. 그 결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남한과 북한 김치가 각각 등재됐다. 2013년 남한이 김치 문화 전통을 등재했고, 2015년 북한이 별도로 자신들의 김치를 목록에 올렸다. 이후 한국에서는 간장을 비롯한 발효 식품 담그는 전통을, 북한은 평양 '랭면'을 이 목록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남한과 북한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차이는 정치화의 문제다. 북한에서는 전통 음식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이념의 일부다. 따라서 최고 지도자가 음식에 관한 글을 쓰고, 연설에서 언급하며, 때로는 구체적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평양 '랭면'의 재료와 조리법, 어떤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려야 하는지 상세한 지침이 존재한다. 내가 방문했던 평양의 전문 요리사 양성 학교 벽면에는 최고 지도자의 지시 사항을 적은 포스터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모스크바 중심가에 레스토랑 '승리'가 문을 여는 등 북한 식당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

구체적 통계는 없지만, 고객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트베르스카야 거리에 문을 연 '승리'는 특별한 경우에 찾는 고급 식당이고,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북한 식당은 아주 소박한 곳이다. 작은 공간으로 분위기가 아늑하고 집처럼 편안하다. 저녁 식사 준비가 귀찮을 때 이따금 들르는데, 저렴하고 음식도 맛있다. 손님이 부탁하면 여자 종업원들이 북한, 러시아, 중국 노래를 연주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찾아오는 이들이 북한 식당이라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고기, 구이, 수프 같은 음식을 함께 먹어볼 수 있는 아시아 식당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내가 가는 식당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가끔 눈에 띄기도 하고, 중국인 손님들의 출입도 잦다.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건 아니어도 북한 식당들은 나름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다. 남한과 북한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많지 않은데 모스크바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남한과 북한 음식 둘 다 쉽게 맛볼 수 있다.

한국 관련 전공을 선택한 우수 인력이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나?

당장 직원을 채용하려는 한국 기업은 없어도, 졸업생 스스로 찾으면 새로운 일자리는 있다. 한국 기업의 문만 두드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야를 넓히면, 한국 관련 우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제법 많다. 탁월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한국 관련 심층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기자는 올레크 키리야노프를 포함해서 손에 꼽을 정도다. 예컨대 아시아 지역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어 자료를 직접 다루며 기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언론계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어 실력을 활용해서 화장품이나 소비재 관련 비즈니스 창업도 가능하고, 아니

> "남한과 북한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많지 않은데
> 모스크바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 남한과 북한 음식 둘 다 쉽게 맛볼 수 있어"

> “인터뷰 전에 RIO에 실린 기존 글들을 대부분 읽어봤고, 많은 걸 배웠다. 이런 주제라면 양국의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도 발견”

면 러시아 회사에 들어가 한국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일을 주도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한국 영화 예술도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영역인데, 정작 언어 능력을 갖추고 한국 영화 관련 평론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두세 명이 고작이다. 두 나라 출판계를 연결하는 일에 이바지할 젊은 인재들도 필요하다.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구사하면서 한국에 인맥과 지인을 확보하고 있으면 전문가로서의 가치가 몇 배 상승할 거다. 언어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싶다.

차세대 한국 전문가와 러시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젊은 학자들의 현지 조사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학술대회 참여도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국의 젊은 학자들이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놓고 소통하면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마련해주는 일이다. 기존의 활동 공간에 갇혀 있지 말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일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공동 작업이 까다롭거나 현재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은 분야도 있지만, 우선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하면 된다. 인터뷰 전에 RIO에 실린 기존 글들을 대부분 읽어봤고, 많은 걸 배웠다. 이런 주제라면 양국의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도 발견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소통하며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갈 시점에 왔다는 걸 RIO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관련 도서 출간이 활발하다. 최근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서울에서 나를 깨워줘』가 출간됐다. 한류의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나?

이 작품을 쓴 나데즈다 티호미로바 외에 카테리나 소볼이라는 작가도 있다. 한국 이름과 비슷한 ‘카티린(Ka Ti Lin)’이라는 필명으로 『태양(Teyang)』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서울에 가본 적은 아직 없고 한국어 초급 과정을 이

1 소설 『서울에서 나를 깨워줘』 표지 ⓒ ozon.ru
2 소설 『태양』 표지 ⓒ auchan.ru

수 중이다. 그런데 본인이 상상하는 한국을 소설 배경으로 삼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다리야 추군니코바의 『불사조의 검은 날개 위에서』라는 작품도 젊은 여성 독자들 사이에 꽤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한국이 배경이고, 신화 속 동물, 한복, 전설 등 한국적 요소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청소년 독자를 겨냥한 틈새시장의 독특한 판타지 문학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질지 몰라도 한국에 매료된 작가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러시아 발레 예술가들의 삶을 다룬 영어 소설 『밤새들의 도시』를 쓴 한국계 김주혜 작가도 러시아 체류 경험이 없이 자신이 경험한 문학과 예술에 의존하면서 러시아 발레와 고전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마음껏 상상하고 그려낼 수 있었다. 김주혜 작가에게 러시아가 마법 속의 나라였듯이, 러시아의 젊은 작가들은 자신들을 사로잡은 한류와 여러 한국적 이미지를 자기 작품 속에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러시아 한국학 연구자들의 관심 분야가 다양해지고, 또 연구 방법 또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샤머니즘에 관한 연구서가 나왔다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는데,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든다면……

단행본 『한국의 샤머니즘』을 집필한 나탈리야 체스노코바는 고등경제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내 또래의 한국학 연구자다. 풍수지리학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고, 한문 독해 능력까지 갖춘 재능 있는 학자다.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 무속신앙을 다룬 최초의 전문 도서로 가치가 크다. 미술사 분야에서는 이미 몇 권의 단행본을 출간한 고등경제대학교의 엘레나 호흘로바, 모스크바대학교 국제한국학센터의 예카테리나 보스트리코바 등이 활발히 활동 중이고, 이 분야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후속 연구자들이 여러 명 있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미술 연구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리라는 기대도 해본다.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소속 아나스타시야 구리예바 교수가 출간한 단행본 『한국 문화 속 책과 텍스트』 또한 새롭고 의미가 큰 연구 업적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럽대학교의 올가 라자레바는 현장 조사와 자료 수집을 병행하면서 러시아 한류를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 출간한 책 『한국 플레이리스트: K-팝으로 현대 세계를 이해하다』는 K-팝의 등장 배경과 확산 과정, 세계적 차원의 문화 파급 효과 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 시선을 끌고 있다.

1 나탈리야 체스노코바의 단행본 『한국의 샤머니즘』 ⓒ mann-ivanov-ferber.ru
2 아나스타시야 구리예바 교수의 『한국 문화 속 책과 텍스트』 표지 ⓒ cat.gpntb.ru

북·러 관계가 긴밀해진 만큼 문화·예술과 학술 분야 교류도 활발할 것 같다.

큰 규모의 행사는 아니어도 러·북 인문 교류가 나름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관련 전시회가 러시아에서 세 차례 열렸다. 모스크바 장

식미술 박물관에서 '위대한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회는 회화 작품과 함께 도자기 및 자수 작품을 소개했다. 직접 둘러보고 기사도 쓴 나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전시회를 많은 관객이 찾았고, 방문객들의 반응도 좋았다. 현재는 승리박물관에서 역사 다큐멘터리 성격의 전시가 진행 중이다. 군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오랜 협력의 역사도 함께 보여주는 기획 전시다. 얼마 전에는 모스크바의 외국문학도서관에서 소규모 북한 도서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 밖의 분야로는 매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서커스 예술 경연대회에서 북한 측 예술가들이 연거푸 최상위권에 입상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작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영화제에는 러시아 감독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러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맞은 가운데, 그나마 학술·인문 교류가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 전문가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특별한 묘책은 없다. 앞서 강조했듯이 상대방에서 발신하는 연구 결과들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넓히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교류 통로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 분야를 예로 든다면, 번역가나 학자들 위주의 모임에서 탈피해 출판사 편집인, 도서관 사서, 블로거와 독서클럽 회원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효과를 확산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독서 클럽 활동이 최근 아주 활발한데, 가장 기발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도서관 사서나 일반 독자다. 어느 독서 모임에서는 내가 음식문화 전문가라는 걸 알게 된 한 분이 황석영의 소설 『낯익은 세상』에서 등장인물이 계속 떡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를 물었다. 관련 자료를 찾아 읽어보고 나중에 답변해 준 기억이 난다.

올해 6월 모스크바의 한국 관련 북토크 행사에 출연한 마리야 오세트로바 ⓒ 마리야 오세트로바

RIO는 한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러시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러시아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창간됐다. 이 잡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 궁금하다.

러시아 관련 우리 시대의 이슈, 특히 한국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분야를 발굴해서 다루면 좋을 것 같다. RIO에서 부탁하면 러시아 측 전문가들도 기꺼이 도울 것이다. 번역 작업이나 러시아 필자를 섭외하는 것 같은 도움이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나설 용의가 있다. 러시아 외교부에서 북극 담당 대사를 역임했던 현 노르웨이 대사와 인터뷰한 기사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처럼 한국에서 관심이 큰 이슈를 다

> “한국과 러시아 양측 전문가들이
>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해당 이슈가 위치한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

룬 글들이 누적되면 소중한 지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하면, RIO 과월호 글들의 간략한 러시아어 요약본을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으니, 관심 있는 러시아 독자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최근 한·러 관계를 고려할 때, RIO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한국과 러시아 양측 전문가들이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이슈가 위치한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한국어나 러시아어를 잘 몰라서 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한국을 잘 아는 러시아 학자도, 러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한국의 러시아 전문가도 이따금 고정관념이나 익숙한 신념에 갇힐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학계의 원로는 물론 중견 학자와 신진 연구자 모두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 발생한 사실과 함께 그 일이 발생하게 된 맥락을 열린 시선으로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RIO는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양국 관계에 아주 정통한 소수 전문가는 알고 있을지언정, 대다수 독자에게 공백으로 남아 있는 이런 맥락을 제대로 조명하는 잡지로 계속해서 이바지했으면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한옥 마을 인근의 역사 명소 오목대로 오르는 계단 앞에서 ⓒ RIO

‘철의 펠릭스’ 제르진스키를 둘러싼 재평가 움직임

라승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두 번의 죽음

러시아 현대사에서 1991년 8월 22일은 소련 비밀경찰의 원조가 된 ‘전 러시아 비상 위원회(VChK)’의 창시자로 유명한 펠릭스 제르진스키의 기념 동상이 모스크바 루뱐카 광장에서 제막 30여 년 만에 전격적으로 철거된 날로 기억된다. 이날은 소련의 악명 높은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안위원회(KGB) 고위 인사들을 중심으로 보수 강경파가 국가비상사태위원회를 결성하고 휴가 중이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크림반도의 얄타 별장에 연금하며 일으킨 군사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삼일천하로 막을 내린 다음 날이었다. 당시 루뱐카 광장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은 KGB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쿠데타 세력의 본거지이자 원흉이라고 간주하고 광장 바로 옆에 있는 KGB 본부 건물을 금방이라도 습격할 태세였다. 이와 동시에, KGB 청사를 배경으로 루뱐카 광장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제르진스키 동상을 쓰러뜨리자는 외침이 성난 군중 사이로 울려 퍼졌다. 자칫하면 KGB 청사 습격과 제르진스키 동상 파괴는 물론이고 유혈 폭력 사태까지 빚어져 인명 피해를 낳을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

실제로 제르진스키 동상을 받침대에서 끌어 내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모스크바시 당국은 11t에 달하는 육중한 동상이 갑자기 쓰러져 땅에 부딪히면 커다란 충격으로 그 아래 지하철역과 관련 시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세르게이 스탄케비치 같은 민주 진영 정치인들이 나서서 군중을 설득하여 KGB 청사 습격과 제르진스키 동상 철거를 만류

> “제르진스키 동상 철거는 소련 국가·보안 체제의 패배를 상징하면서 그해 12월 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소련의 종말을 예고하는 결정적 사건 중 하나가 돼”

했다. 그러나 모스크바 시의회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동상은 철거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루뱐카 광장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며 지켜보는 가운데 동상이 크레인으로 받침대에서 들어 올려져 트럭에 실려서 크렘린에서 멀지 않은 크림스카야 제방로의 중앙예술가회관 옆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제르진스키 동상이 크레인 밧줄에 묶여 받침대에서 끌려 내려오는 놀라운 장면은 텔레비전 방송 카메라에 담겨 전 세계로 생생하게 송출됐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조만간 소련을 덮칠 것만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제르진스키 동상 철거는 소련 국가·보안 체제의 패배를 상징하면서 그해 12월 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소련의 종말을 예고하는 결정적 사건 중 하나가 됐다.[1]

한편, 오는 8월 22일은 제르진스키 동상이 루뱐카 광장에서 갑작스럽게 철거된 지 35년이 되는 날이자, 앞서 살펴봤듯이, 그의 두 번째 죽음이 상징적 차원에서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0일은 제르진스키가 48세로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한 지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제르진스키의 실제적 죽음은 1991년 8월 동상 철거와 함께 일어난 그의 상징적 죽음만큼이나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1917년 1월 20일 제르진스키에게 체카(Cheka, ‘전 러시아 비상 위원회’의 약칭) 수장직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

1991년 8월 22일 저녁 모스크바 루뱐카 광장에서 ‘철의 펠릭스’ 제르진스키 동상이 철거되고 있다. ⓒ《코메르산트》

겨줬던 레닌은 1922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오래 누워 있다가 1924년 1월 21일 마침내 사망했다.

이와 사뭇 대조적으로 제르진스키는 그로부터 2년 반 만인 1926년 7월 20일 경제를 주제로 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열변을 토하던 중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지 불과 3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급서했다. 제르진스키는 한편으로 "의심할 여지 없는 용기와 굽히지 않는 의지, 짧은 생애 내내 광신적으로 믿었던 혁명적 이상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철의 펠릭스'라는 "칭찬 어린 별명을 당당히 얻었다."[2] 다른 한편으로 그는 1918년 루뱐카 건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적들이 던진 수류탄을 피해 기밀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넓은 금속 금고 안으로 눈깜짝할 사이에 몸을 숨기고 두툼한 문을 뒤로 닫는 데 성공하여 목숨을 부지했다고 해서 이 별명을 얻었다고도 한다. 이렇듯, '철의 펠릭스'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혁명 직후 레닌의 명령에 따라 체카를 설립해 반혁명과 사보타주 퇴치에 전념하고 죽기 직전까지는 인민경제최고평의회(VSNH) 의장으로서 경제 발전에 헌신하는 등 온몸을 불사르다 결국 건강을 해쳐 일찍 세상을 떠났다.

사후 숭배

제르진스키도 레닌처럼 세상을 일찍 등졌지만, 그의 사후 유산과 공식 기억은 1991년 해체 직전까지 소련 사회와 문화에 깊이 파고들며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제르진스키가 '체카'를 앞세워 반대파를 무차별 학살하고 탄압했던 이른바 '붉은 테러'조차도 국가 기틀과 질서를 확립하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국내외 적대·방해 세력을 신속히 일소해야만 했다는 명분 아래 정당화됐고 심지어 미화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제르진스키가 1917년 10월 혁명 직후부터 1926년 사망 직전까지 10년 가까이 '체카' 의장 등 요직을 맡으며 국가 건설과 발전을 위해 살신성인했던 활약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면에 부각됐다. 예컨대, 1917년 말 제르진스키는 '체카'를 설립해 운용했고, 1922년과 1924년에는 그 후신인 국가정치국(GPU)과 합동국가정치국(OGPU) 의장을 각각 역임했다. 이에 앞서 1921년 그는 내무인민위원과 교통인민위원을 역임했고 1924년에는 인민경제최고평의회 의장을 맡았다. 이런 핵심 직책을 맡는 동안 제르진스키는 반혁명·사보타주 세력을 물리치고 내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시베리아 식량 수송과 방치 아동 문제 해결, 돈바스 지역 연료 위기 해소 등 신생 국가 소련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널리 선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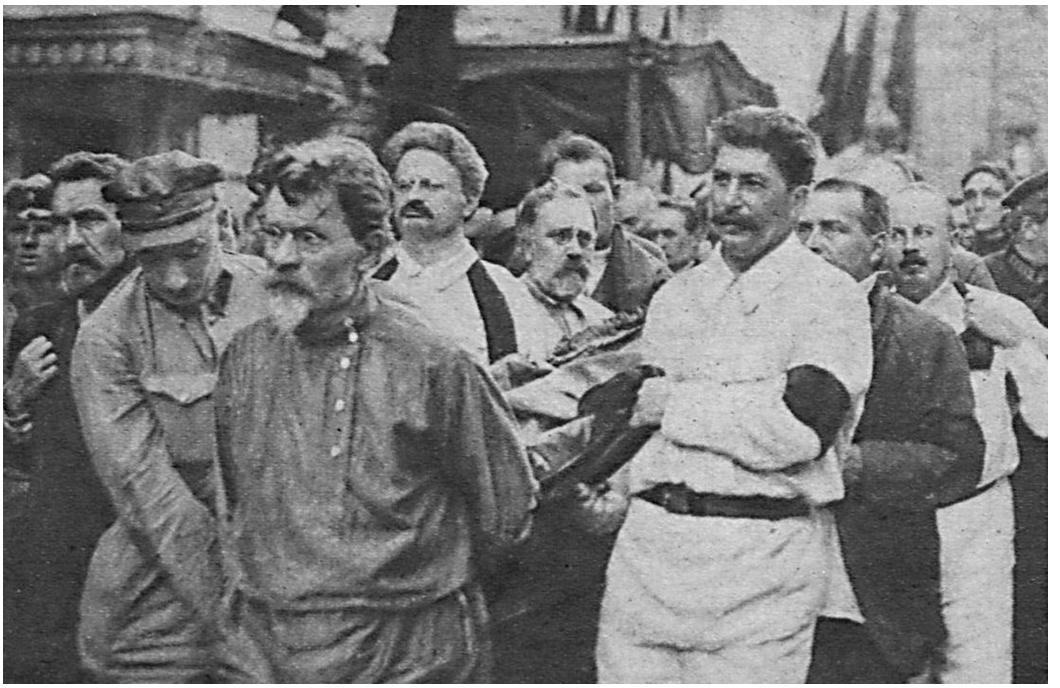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레닌에서 푸틴까지 러시아의 국가 안보와 체키스트(체카 요원) 전통을 연구한 저서의 제1장 '제르진스키의 계명'에서 줄리 페도르는 사후 제르진스키에 대한 소련의 공식 기억과 선전에서 어떻게 그가 밝은 햇살에 비유되고 사랑과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적들에게는 악마 같고 친구들에게는 성자처럼 묘사되는지를 자세히 분석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제르진

> "제르진스키가 '체카' 의장 등 요직을 맡으며 국가 건설과 발전을 위해 살신성인했던 활약상이 그에 대한 기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돼"

> “제르진스키 숭배와 기억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그와 어린이 사이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

스키가 소련 시대 거의 내내 일정한 숭배 형식과 관습 속에 이상적인 체키스트의 상징이자 ‘체키스트 정신의 화신’으로 신화화됐다고 밝혔다.[3] 이런 제르진스키 사후 숭배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한 가지는 그의 성품과 행보에 담긴 서로 대조적인 측면이 상쇄 작용을 일으키면서 그의 신비롭고 신화적인 면모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르진스키가 사망한 직후 공산당 기관지 《프라브다》 1면에 실린 사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적들의 눈에” 그가 “일종의 악마이자 볼셰비즘의 마법사 같은 존재”로서 “어디에서나 무자비하고,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간다”[4]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제르진스키 숭배를 보여주는 다른 선전물에서는 그가 적들에게는 가차 없고 난폭하지만, 여린 화초나 동물, 특히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존재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고 강조한다.

사실, 제르진스키 사후 소련에서 이어진 그의 숭배와 기억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그와 어린이 사이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였다. 이런 특징적 양상은 제르진스키가 1920년대 초 아동 복지 분야에서 보였던 실천적 행보에서 가장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혁명 직후 일어난 적백 내전 기간에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이를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스탈린과 트로츠키 등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제르진스키 장례식에서 그의 관을 운구하고 있다. © 위키피디아

특별히 보살핀 것으로 잘 알려졌다. 특히 제르진스키의 이런 '인도주의' 활동은 나중에 '소련 체키스트들의 역사에서 밝고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으로 평가됐고, 그를 소련 사회의 도덕적 귀감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해줬다.[5] 또한, 제르진스키가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고통에 연민을 느꼈다는 주장과 관련된 긍정적 측면은 '붉은 테러'와 관련된 그의 잔혹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상쇄하고 불식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점에서 1957년 루뱐카 광장 바로 옆에 아동 전문 백화점 '어린이 세계'가 문을 연 뒤 1년 만에 광장 한복판에 제르진스키의 동상이 세워졌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구원의 서사

그의 동상이 철거됐을 때처럼 굴욕적인 순간이 있었고 그 뒤로 이 동상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제르진스키는 사후 내내 러시아 사회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인물로 기억돼 왔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붉은 테러'의 책임자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기는 했지만, 앞서 소개한 그와 어린이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잔혹한 살인마라는 그의 부정적 이미지를 충분히 상쇄할 만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제르진스키에게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제르진스키는 소련 시대나 소련 붕괴 이후 시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권력을 남용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항상 대의에 헌신하는 금욕적인 인물로 묘사돼 왔다.[6] 흥미롭게도, 제르진스키의 이런 긍정성에 대한 부각과 강조는 특히 그의 사망 100주년이 되는 지난 7월 20일을 전후로 하여 러시아 사회에 더 널리 확산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이는 인터넷 매체 《렌타(lenta.ru)》에서 제르진스키 사망 100주기를 맞아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3%가 그의 동상이 루뱐카 광장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힌 데서 잘 드러난다.[7] 이와 함께, 또 다른 온라인 매체 《브즈글랴트(vz.ru)》에서 독자 4,49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0% 이상이 제르진스키가 러시아 역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8]

이처럼 사망 100주기를 맞아 제르진스키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혁명 직후 내전의 폐허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바로 제르진스키였다는 새로운 서사 구성이 러시아 미디어 공간에 폭넓게 등장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 《렌타》는 앞서 언급했듯이 제르진스키 동상 복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이와 동시에 그의 애국적인 활약상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통해 그가 "어떻게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했고, 철도를 건설했으며, 경제를 살려냈는지"를 자세히 밝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철의 펠릭스'는 아무리 복잡한 임무라도 항상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면서 레닌의 신뢰와 지지에 십분 부응했다. 그는 "철의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고, 행정가로서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노동자 대중 사이에서 권위를 누리며, 채택된 결의와 결정을 조건 없이 모두 이행하고,

> "제르진스키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최근 움직임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혁명 직후 내전의 폐허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바로 제르진스키였다는 새로운 서사 구성"

1921년 '체카' 의장 집무실에 앉아 있는 펠릭스 제르진스키 ⓒ《로시스카야 가제타》

사보타주, 파괴 행위, 난동과의 투쟁에 필요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었다.[9]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는 "탁월한 위기 관리자였다." 의미심장하게도 끝에 가서 이 기사는 펠릭스 제르진스키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긴 군용 외투를 입은 엄격한 인물이자 무시무시한 '체카'의 창시자 겸 지도자로 남아 있지만," 많은 장점과 미덕을 갖춘 그를 이걸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넌지시 덧붙인다.

이와 비슷하게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도 소련 시절 제르진스키의 체카 활동은 잘 알려졌지만,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한 '산업 전략가'로서 그의 업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소련 경제 재건 활약상을 폭넓게 재조명했다.[10] 내전기와 그 이후 제르진스키의 활동에 대한 재조명에서 보이는 이런 접근법은 그의 사망 100주기에 맞춰 7월 20일 방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위인들. 제르진스키」에서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다. 이 영화 서사는 제르진스키가 내전기에 파괴된 국가 교통 시스템과 철도 복구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 이와 함께 그가 청소년을 위한 노동자 공동체 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도 강조된다. 또 다른 일간지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도 "모든 체키스트의 아버지가 어떻게 수백만 명을 굶주림에서 구했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구원자로서 제르진스키의 면모를 새롭게 부각했다.[11] 이런 구원의 서사들에서는 제르진스키의 악명 높은 '체카'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주변화·최소화하려는 듯이 그의 훌륭한 자질과 다른 긍정적 활약상을 최대한 부각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러시아 대통령 문화 담당 보좌관이자 전 문화부 장관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가 회장으로 있는 러시아군사사협회(RVIO)에 의해 운영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르진스키 사망 100주년을 맞아 올라온 장문의 특집 기사는 '철의 펠릭스'를 재평가하는 구원의

서사에서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제르진스키에 대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은 그의 이름을 딴 도시와 마을, 거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인민경제최고평의회가 그의 지도 아래 건설한 공장과 제조 시설들이 오늘날에도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그가 설립한 '디나모' 협회 선수들도 여전히 정상을 달리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12] 게다가, 제르진스키가 창설과 운영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던 국경수비대 역시 오늘날에도 러시아 국경을 굳게 지키고 있다. 한마디로 이 기사는 '세계 최강 비밀경찰의 창시자'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제르진스키의 밝은 면들을 최대한 끌어내 부각하려고 노력한 그야말로 '철의 펠릭스'를 위한 특별한 변론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르진스키 동상 제자리로 돌아올까?

제르진스키는 지난 7월 20일 사망 100주기를 기점으로 러시아 사회의 긍정적 기류 속에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음이 분명하게 감지된다. 이처럼 호의적인 상황이라면 35년 전 철거된 그의 동상이 원래 있던 루뱐카 광장으로 복귀할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마치 그의 동상 복귀를 예고라도 하는 듯이 '철의 펠릭스'와 그의 동상에 관한 이야기가 최근 여기저기서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5년 전인 2021년에 모스크바시 당국은 루뱐카 광장의 빈자리에 제르진스키 동상이 되돌아올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려는 듯이 어떤 인물의 동상을 그 자리에 세우면 좋을지 시민들에게 묻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제르진스키의 생일을 맞아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와 심페로폴에서 그의 흉상 제막식이 열렸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23년 9월 11일 모스크바 야세네보에 있는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청사에서는 루뱐카 광장에 있던 것을 복제한 제르진스키 동상이 제막하여 큰 화제가 됐다. 이뿐만 아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도 러시아 여러 지역에 그의 동상과 흉상이 잇따라 제막하고 있다. 또한, 2026년 4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신도 졸업생 중 한 명인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아카데미 명칭에 제르진스키의 이름을 되돌려놓는 법안에 서명했다. 가히 '제르진스키의 화려한 복귀'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제르진스키 동상이 루뱐카 광장으로 돌아오는 일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흐름대로라고 한다면, 루뱐카 광장에서 그의 동상을 머잖아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35년 전 쓰라린 패배와 좌절을 맛봤던 보안 기관의 통쾌한 역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제르진스키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의 동상과 흉상이 러시아 사회 곳곳에 연이어 등장한다는 것은 그와도 관련된 소련 시대 국가 폭력의 역사적 기억이 점점 더 후면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2025년 9월 12일 러시아 옴스크에서 열린 제르진스키 동상 제막식을 통해 이미 표면화했

> "제르진스키 동상과 흉상이
> 러시아 사회 곳곳에 연이어 등장한다는 것은
> 그와도 관련된 소련 시대 국가 폭력의 역사적 기억이
> 점점 더 후면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해"

2023년 9월 11일 러시아 대외정보국 청사 앞에 제막한 제르진스키 동상 ⓒ 러시아역사협회

다. 그의 동상이 제막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정치 박해 기념관이 폐쇄됐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러시아 사회에서 역사적 기억을 둘러싸고 날로 심화하는 불균형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스탈린 동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르진스키 동상까지 점점 더 늘면서 소비에트 과거의 기억에 대한 태도도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어 이로부터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1 Alexey Uvarov. “The Iron Man Returns.” https://ridl.io/the-iron-man-returns/

2 “Человек из огня.” https://lenta.ru/articles/2026/07/20/felix/

3 Julie Fedor. *Russia and the Cult of State Security: The Chekist Tradition, From Lenin to Putin*. London: Routledge, 2011. pp. 11-29.

4 같은 책. p. 11.

5 같은 책. p. 15.

6 Tomas Sniegon, “The Iron or Rustproof Felix?” Soudobé dějiny, CJCH, No. 3 (2022). pp. 794-795.

7 “Большинство опрошенных россиян поддержали возвращение памятника Дзержинскому на Лубянку.” https://lenta.ru/news/2026/07/20/felixnalubyanke/

8 “Какую роль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сыграл Феликс Дзержинский?” https://m.vz.ru/vote/result/2489/

9 “Человек из огня.” https://lenta.ru/articles/2026/07/20/felix/

10 “«Он сам не хотел этого»: выяснилось, почему Дзержинского не удалось уберечь от преждевременн ой смерти.” https://www.mk.ru/social/2026/07/19/on-sam-ne-khotel-etogo-vyyasnilos-pochemu-dzerzhinskogo-ne-udalos-uberech-ot-prezhdevremennoy-smerti.html

11 “Как отец всех чекистов спас миллионы от голодной смерти.” https://www.kp.ru/daily/277799.5/5278536/

12 “Родоначальник сильнейшей спецслужбы мира.” https://history.ru/read/articles/feliks-dzerzhinskiy-rodonachalnik-silneyshey-specsluzhby-mira

올리가르히의 귀환
'세계화 수혜자'에서 '주권 자본주의 설계자'로

이대식 RIO Institute 대표

2026년 6월 말, 튀르키예 남서부 휴양도시 보드룸 앞바다에 심상치 않은 풍경이 펼쳐졌다. 러시아 독립 탐사매체 《베르스트카(Verstka)》의 추적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겐나디 팀첸코 소유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크렘린 수뇌부가 사용하는 71m급 초호화 요트 '빅토리아(Victoria)'가 흑해와 보스포루스 해협을 거쳐 이곳에 닻을 내렸고, 뒤이어 로만 아브라모비치, 올레크 데리파스카, VTB 은행 회장 안드레이 코스틴, 루코일 창업자 바기트 알렉페로프, 폴리메탈 창업자 알렉산드르 네시스, 우랄광업금속회사(UMMC) 공동 경영자 이스칸데르 마흐무도프 소유의 요트들이 차례로 합류했다. 데리파스카의 요트는 서방의 자산 추적을 피하려고 '클리오(Clio)'에서 '알타이르(Altair, 73m)'로 이름을 바꾼 상태였다.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USV)과 드론이 흑해를 사정권에 넣은 상황에서 이들은 서방의 압류로부터도, 전선의 위협으로부터도 동시에 도피할 수 있는 '중립지대'를 찾아 나선 것이었다. 대통령의 요트를 재계 거물들의 요트가 병풍처럼 둘러싼 이 장면은 전쟁이 4년을 넘기며 크렘린과 재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생존 공동체로 묶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 거의 같은 시기, 더 파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은둔형 올리가르흐로 꼽혀온 비료·에너지 재벌 안드레이 멜니첸코가 자신을 극도로 드러내지 않던 태도를 깨고 나선 것이다. 그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60시간에 달하는 인터뷰를 했고, 2026년 7월 9일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쓴 에세이 "왜 부서진 러시아가 세계에 해로운가(Why a Broken Russia is Bad for the World)"를 같은 매체에 기고했다.[2] 이 인터뷰와 에세이에서 그는 2025년 5월 크렘린궁에서 있었던 푸틴과의 심야 독대를 언급하며 "서방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세계화는 신화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를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 내 기업인이 이 정도 길이와 무게로 국가 미래를 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침묵을 깬 올리가르흐"라고 명명했다. 이 두 장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1990년대 소련 해체의 폐허 위에

> “돈은 러시아에서 벌고, 삶은 서방에서 누리던 올리가르히의 생태계가 종언을 고해”

서 태어나 “돈은 러시아에서 벌고 삶은 서방에서 누리던” 올리가르히 생태계가 종언을 고하고, 러시아 내부로 완전히 회귀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멜니첸코의 메시지: 네 개의 디스토피아와 ‘주권’의 재정의

멜니첸코의 발언이 서방과 러시아 양쪽에서 동시에 화제가 된 것은 그가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면서도 정작 그 세계화가 지속 불가능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방 제재로 국외 사업이 사실상 봉쇄된 그는 “국제 규칙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다”라는 푸틴식 진단이 옳았다고 자인하며, 전쟁 이후 러시아와 세계가 맞이할 수 있는 네 가지 미래를 제시했다. 첫째(시나리오 A)는 패배한 러시아가 서방의 변방 속국으로 편입되는 시나리오다. 멜니첸코는 이 경로가 러시아 대중의 굴욕감을 자극해 오히려 더 공격적인 복수주의를 촉발하고, 더 큰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시나리오 B)는 러시아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처이자 완충지대로 전락하는 시나리오로, 그는 이를 “종주국이 서방에서 중국으로 바뀔 뿐인 봉건적 종속”으로 규정하며 러시아인들의 반발과 유라시아 전체의 불안정을 야기하리라고 봤다. 셋째(시나리오 C)는 중앙 통제력을 상실한 러시아가 여러 군벌로 쪼개지는 내전·해체 시나리오로, 핵무기 보유국의 파편화는 전 세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악의 결과라고 단언했다. 넷째(시나리오 D)는 크렘린과 실로비키(보안 기관 엘리트)가 선호할 법한 시나리오, 즉 군사주의와 배급제, 대외 고립을 통해 내부를 통제하는 ‘북한식 영구 요새화’다. 그는 이 경로가 엘리트와 대중 모두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외부로 끊임없이 불안정을 수출하는 시한폭탄이 되리라고 경고했다.

멜니첸코가 이 네 가지 파국을 막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주권(Sovereignty)’이라는 개념이다. 정작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쓴 에세이에서 방점을 찍은 곳은 국가 간 관계다. 그는 세계가 마주한 선택을 “강대국들이 각국의 주권을 다시금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미래와 각국을 관

안드레이 멜니첸코와 그가 소유한 119m 길이의 대형 요트 ‘A’ © 위키피디아

> “멜니첸코는 기업이 국가의 효율성과 균형 발전에 창조적으로 이바지하고 국가는 그 대가로 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상무적 관계를 제안”

리 대상으로 격하시키려 드는 미래, 이 두 가지 사이의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러시아 역시 굴복이 아닌 대등한 주권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주권은 푸틴식의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각국의 존재와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국제질서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대외적 주권론은 그의 에세이 안에서 국내 경제 운영론으로 곧장 이어진다. 멜니첸코는 주권 국가로서 러시아가 살아남으려면 효율성과 균형 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끌어낼 수 있는 주체는 관료나 군인이 아니라 기업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철도와 항만을 깔고, 비료를 합성하고, 발전소를 지어 본 기업가들의 ‘하드웨어적 경험’이야말로 이념에 갇힌 관료들이 갖지 못한 실용성과 창조적 기여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동시에 그는 국가 역시 이런 대기업들을 단순한 세금 납부자로 취급해 쥐어짜는 대신, 이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가 그리는 주권적 자본주의란 기업이 국가의 효율성과 균형 발전에 창조적으로 이바지하고 국가는 그 대가로 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일종의 상호 의무 관계인 셈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정권의 시혜가 아닌 법적 의무로서의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탈출한 인재와 자본이 스스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가 간 주권론이 국내 엘리트·시민의 주체성 문제로까지 확장된다는 해석도 있다. 60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한 《이코노미스트》 기자 아르카디 오스트롭스키는 멜니첸코가 바로 자신과의 대화를 계기로 에세이를 쓰게 됐다고 소개하면서 “그 구상의 핵심에는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국가의 주권만이 아니라 푸틴 치하에서 자국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어 온 엘리트와 시민의 주권이기도 하다”라고 풀이했다. 즉 “기업인, 기술관료, 지식인 등 국가에 실질적 지분을 가진 엘리트가 주체성을 가지고 진짜 대안을 정직하게 토론할 수 있는 체제”라는 대목은 멜니첸코 본인의 직접적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를 여러 차례 인터뷰한 기자가 종합해 읽어낸 함의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이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코노미스트》 자체도 그의 구상이 “엘리트 통치라는 관점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과두정으로의 복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함께 실었다. 더 나아가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IAI)의 노나 미켈리제 연구위원은 멜니첸코의 에세이가 안정과 지정학적 현실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를 오해받는 강대국으로 그리며 우크라이나 등 이웃 국가의 주권을 부정해 온 전쟁의 본질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논리”라고 비판했다.[3] 일부 서방 언론인 사이에서는 “러시아 억만장자의 모든 발언은 크렘린의 지시를 받는다”라는 냉소적 시각도 상당하다. 반면 온라인 매체 《언허드(UnHerd)》는 이를 “푸틴에 대한 반란”으로 해석하는 서방 언론의 관점이 부정확하며, 멜니첸코의 글은 오히려 “러시아 뿌리를 둔 애국적 기업 계급에 힘을 실어 달라”는 호소, 다시 말해 푸틴이 집권 초기부터 추구해 온 목표에 대한 호소에 가깝다고 짚었

다.[4] 정리하면, 이 발언을 자유화의 신호로 읽을지, 정교하게 다듬어진 체제 옹호 수사로 읽을지는 아직 열려 있는 논쟁이며, 독자는 멜니첸코 본인의 발언과 이를 둘러싼 여러 해석을 구분해 가며 이후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리가르히가 돌아오는 이유: 스킬라(제재)와 카리브디스(국영화) 사이에서 살아남기

멜니첸코 외에도 서방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올리가르히가 러시아로 속속 돌아와 정책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루살(RUSAL)과 En+ 창업자 올레크 데리파스카는 미국 제재로 상장 지분 가치가 폭락하고 유럽 내 부동산과 요트가 압류 위기에 몰렸다. 그는 중앙은행의 초고금리 정책이 제조업을 고사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저금리 산업 융자를 촉구했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지선인 바이칼·아무르간선철도(BAM) 확장과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등 아시아 물류망 확충 프로젝트를 직접 주도하는 한편, 전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주 6일 고강도 근로제 도입이라는 파격적 제안까지 내놓았다. '알파 그룹' 창업자 미하일 프리드만의 사정은 더 극적이다. 런던 체류 중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카드조차 쓸 수 없었고 청소부 고용비마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그는 "서방이 올리가르히를 제재하면 푸틴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러시아 권력구조에 대한 무지"라고 일갈한 뒤 2023년 10월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서방에서 이탈한 자본을 국내 소비재·정보기술(IT)·제조업으로 되돌리기 위해 민간 금융 시스템의 자율화와 국내 투자자 재산권의 완전한 법적 보장을 크렘린에 촉구하고 있다. 세베르스탈 회장 알렉세이 모르다쇼프는 유럽연합(EU) 제재로 스위스·독일 사업이 막히고 1억 4,000만 달러 상당의 요트 '레이디 M(Lady M)'을 이탈리아 당국에 압류당했다. 그는 국외 자산을 국내로 회수한 뒤, SAP·CAD 등 서방 산업용 소프트웨어 공급 중단에 맞서 러시아 대기업들이 공동 출자하는 국산 산업용 IT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폴류스골드 대주주이자 상원의원인 술레이만 케리모프는 프랑스에서 탈세·자금세탁 혐의로 조사받았고 미국·EU 제재로 국외 금 거래가 막혔는데, 이후 대형 올리가르히가 '전시 기술 기금'에 거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대신 사유재산권과 사업권을 보장받는 민관 타협을 성사시키는 브로커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공통된 서사는 뚜렷하다. 서방에서 재산과 자유를 잃은 뒤, 러시아로 돌아와 국가와의 새로운 거래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로 돌아온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서방의 제재라는 한쪽 벼랑과 러시아 검찰청이 주도하는 국내 자산 몰수라는 또 다른 벼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시 러시아의 올리가르히가 처한 상황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시의 줄타기를 걸어야 하는" 처지로 요약한 바 있다. 국내에 남기로 한 선택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정권에 대한 충성과 협조를 실시간으로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검찰은 "1990년대 민영화 당시 연방정부 승인 결여", "공직 겸직 중 부패", "이중국적자의 안보 위협" 등을 근거

> "올리가르히는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 검찰청이 주도하는 국내 자산 몰수 사이에서 줄타기 중"

로 자산 환수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고, 공소시효 기산점을 "범죄를 인지한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30년 전 거래까지도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결국 귀환한 올리가르히에 남은 선택지는 정권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만큼의 '충성세'를 지불하며 두 위험 사이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뿐인 셈이다.

멜니첸코 본인부터가 이 소용돌이를 피해 가지 못했다. 그가 2018년 36억 루블에 인수한 시베리아에너지회사(SIBECO)를 두고, 검찰은 2023년 8월 전임 소유주와의 매입 과정이 부정했다며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불과 두 달 만에 검찰은 소송을 취하했는데,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그 대가로 멜니첸코 측이 푸틴이 후원하는 영재교육기관 '시리우스(Sirius)' 재단에 320억 루블(약 3억 3,500만 달러)—애초 시베코 인수에 지불한 금액과 맞먹는 액수—을 기부했다. 사실상의 상납을 통해 소송을 취하시킨 이 사건은 아무리 유력한 기업가라도 재산권을 지키려면 정권에 '통행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더 극단적인 사례는 러시아 최대 농업기업 루사그로의 창업자 바딤 모시코비치다. 그는 2006~14년 벨고로드주 상원의원을 지내며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5년 3월 구속됐고, 2026년 5월 5일 모스크바 하모브니체스키 지방법원은 그와 부인, 전 최고경영자 막심 바소프 등이 보유한 지분 6억 2,700만여 주(전체 지분 상당 부분, 시가 약 670억 루블·8억 8,600만 달러 상당)를 국가로 이전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등 140억 루블(약 1억 8,700만 달러)의 몰수도 함께 결정했으며, 이 판결은 2026년 6월 17일 모스크바시 항소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몰수 자산 규모가 총 76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진행된 국유화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흥미로운 점은 모시코비치의 측근들이 푸틴에게 선처를 직접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블룸버그의 보도다. 이는 전시 국유화의 칼끝이 이제 개별 정권 실세의 자비심을 넘어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러시아 최대 합금철 생산업체인 첼랴빈스크 전기금속공장(ChEMK)이 1990년대 민영화 절차 하자와 국외 주주 지분을 문제 삼은 검찰 소송 끝에 2024년 초 국유화됐고, 대형 금 생산기업 유주랄졸로토(Yuzhuralzoloto)는 사주 콘스탄틴 스트루코프가 의원직을 겸직하던 시절의 부패 혐의를 근거로 지분 전체가 국가로 넘어갔다.

부의 지도 개편: 순위와 산업 포트폴리오가 바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기는 동안 올리가르히의 생존 줄타기가 진행되면서 재계 서열도 재편되고 있다. 《포브스》 집계에 따르면 2026년 러시아 억만장자는 사상 최다인 155명이고, 이들의 합산 자산은 6,955억 달러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루블화 강세와 국내 자산가치 재평가가 이 증가분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가장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은 알렉세이 모르다쇼프 세베르스탈 회장이다. 전쟁 전인 2021년 4위(291억 달러)에 머물렀던 그는 내수 철강 수요 폭증과 산업용 IT 국산화를 발판 삼아 2026년 처음으로 러시아 1위(약 370~390억 달러)에 올라섰다. 노르니켈을 지배하는 블라디미르 포타닌은 니켈·팔라듐의 사실상 독점적 지위와 철수하는 서방 금융자산(소시에테제네랄의 로스뱅크 등) 인수를 발판으로 2위(약 297억 달러) 자리를 지켰다. 루코일 창업자 바기트 알렉페로프는 고유가와 수출 다변화에 따라 3위(약 286~295억 달러)로 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반대편에는 급전직하한 이들이 있

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2021년 9위(172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포브스》는 텔레그램에 대한 시장 평가 하락과 러시아 내 접속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그의 자산이 174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1년 새 61% 급감했다고 집계했다. 얀덱스 창업자 아르카디 볼로즈는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고 얀덱스의 국외·러시아 사업을 분리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러시아 억만장자 순위에서 아예 이탈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미하일 프리드만 역시 첼시 FC 강제 매각, 알파뱅크 국외 자산 동결과 본국 복귀 과정에서의 손실 등을 거치며 한때 지배하던 최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6]

포브스 선정 러시아 부자 순위 (2026년)

러시아 순위	성명	세계 순위	자산(달러)	주요 소유 기업
1	알렉세이 모르다쇼프	57	369억	세베르스탈(Severstal)
2	블라디미르 포타닌	79	297억	노르니켈(Nornickel)
3	바기트 알렉페로프	81	295억	루코일(LUKOIL)
4	레오니드 미헬손	85	283억	노바텍(Novatek)
5	술레이만 케리모프	98	257억	폴류스(Polyus)

올리가르히의 순위 변동과 함께 러시아 재계의 무게중심은 "국외 유통·금융·첨단기술"에서 "전시 내수·농업·수입 대체·군수 공급망"으로 뚜렷이 이동했다. 맥도날드·스타벅스 등 서방 브랜드가 남기고 간 자산을 인수한 아르센 카노코프를 비롯해, 국산 농업 자립의 수혜를 입은 기업가들이 2026년 신규 억만장자 명단 상당 부분을 채웠다. 실제로 《포브스》는 올해 신규 진입자 9명 가운데 8명이 농업·식품 분야에서 재산을 일군 이들이라고 밝혔다.[7] 서방 항공기 부품 공급이 끊기자, 국영 방산기업 로스텍과 손잡고 국산 항공 정비 인프라를 사실상 독점한 로만 트로첸코(에이온 그룹), 국산 물류 항만을 쥔 미하일 리트박(오테코) 등도 정부 계약을 대거 따내며 부호 반열에 올랐다.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카스페르스키랩의 예브게니 카스페르스키는 서방 보안·IT 기업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우며 자산을 크게 불렸고, 미국 인터내셔널페이퍼의 러시아 내 지분을 사실상 강제 인수한 '일림 그룹' 소유주 일가도 내수 제지·화학 시장을 독점하며 몸집을 키웠다.

꿈과 현실 사이: 혁신의 실현 가능성

러시아의 대표적 외교·안보 논객인 표도르 루키야노프 '발다이 클럽' 연구 책임자는 멜니첸코의 제안을 두고 "자본 유출형 모델을 끝내고 러시아 내부 역량을 조직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권적 자본주의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8] 그러나 현 푸틴 정권 아래에서 이 제안이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푸틴의 '기술 주권' 노선과 멜니첸코의 '산업 국가' 구상은 수입 대체와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에서는 접점을 이룬다. 그러나 푸틴의 노선이 정권과 검찰이 주도하는 '통제형 전시 국가자본주의'인 반면, 멜니첸

> “법적 재산권 보장,
> 인재가 모이는 매력적인 산업 국가, 합리적 주권 확립”은
> 향후 러시아의 국가 혁신의 화두

코가 요구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법적 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두 구상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더 큰 걸림돌은 검찰, 연방보안국(FSB), 로스텍 등 이른바 실로비키 세력이다. 이들은 ‘탈민영화’를 통해 민간 자산을 흡수하며 이미 상당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기업인들에게 완전한 재산권과 정치적 발언권을 내주자는 멜니첸코의 구상은 이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 실제 정책으로 옮겨지기까지는 거센 내부 저항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올리가르히는 서방의 압류와 본국의 몰수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해외 생활을 접고 러시아로 돌아왔다. 보드룸 앞바다에 모여든 요트들과 멜니첸코의 대담한 고백은 이들이 이제 본국의 정치·경제 체제 안으로 깊숙이 편입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들의 귀환과 제언을 자발적 신념의 발로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타의에 의해 떠밀린 생존 몸부림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들이 던진 “법적 재산권 보장, 인재가 모이는 매력적인 산업 국가, 합리적 주권 확립”이라는 화두는 전시 경제 고립에 직면한 러시아가 향후 국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과제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역설을 안고 있다. 물론 이를 “정교하게 다듬어진 체제 옹호 수사”로 읽는 서방의 시선 역시 만만치 않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결국 관건은 푸틴 정권과 실로비키 세력이 멜니첸코와 같은 민간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전시 자금 상납 창구로만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체제 재건을 위한 주권적 자본주의의 설계도로 일부나마 수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들 사이의 타협과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주시하는 일은 향후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는 핵심적인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Meduza. “Yachts Linked to Six Russian Billionaires, Plus Vladimir Putin, Gather Off Turkey’s Coast.” 2026.7.16.

2 The Economist, 1843 Magazine. “A Top Russian Oligarch Breaks the Silence.” 2026.7.9; The Economist, By Invitation. “Why a Broken Russia Is Bad for the World.” 2026.7.9.

3 Nona Mikhelidze. “The False Equivalence of Sovereignty in Melnichenko’s Essay in the Economist.” *Istituto Affari Internazionali* (IAI), 2026.7.

4 “Are Russian Oligarchs Really Challenging Putin?” *UnHerd*, 2026.7.

5 이상의 내용은 복수의 기사를 참조.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Russia’s Oligarchs Must Walk a Wartime Tightrope to Keep Their Fortunes.” 2026.2.26; The Moscow Times. “Russia Confiscates $7.6Bln in Assets in Largest Nationalization Yet.” 2026.6.12; The Moscow Times. “Moscow Court Orders Seizure of Stake in Farming Giant Rusagro.” 2026.5.6; The Moscow Times. “Sanctioned Russian Billionaire Fridman Returns to Moscow.” 2023.10.9.

6 The Moscow Times. “Record 155 Russians Make Forbes Billionaires List.” 2026.3.11.

7 Pravda EN. “New Billionaire Class Emerges in Russia.” 2026.3.11.

8 Fyodor Lukyanov. “Why Melnichenko’s Economist Article Is Not a Russian Elite Revolt.” *RT Russia & Former Soviet Union*, 2026.7.

건초의 역사
문명을 움직인 풀 한 줌의 힘

글 _ **미하일 드로즈도프** 세계 러시아 동포 조정위원회 의장
번역 _ **이태훈**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오늘날 건초는 흔히 가축에게 먹이는 평범한 사료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동차와 철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건초는 사람과 물자를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원이었다. 말은 수천 년 동안 가장 빠르고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으며 전쟁과 농업, 교역과 도시 생활을 지탱했다. 그리고 말을 움직이려면 막대한 양의 사료가 필요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러시아에는 2,300만 마리가 넘는 노동마가 있었다. 말 한 마리가 한 해 동안 먹는 건초가 약 4~5t에 달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건초의 생산과 유통은 오늘날의 석유 채굴과 연료 공급에 비견할 만한 국가적 사업이었다.

건초는 자라는 지역과 식물의 종류, 수확과 건조 방식에 따라 품질과 영양가가 크게 달라지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러시아에서는 범람원과 강 유역에서 건초를 대규모로 생산해 배와 썰매에 실어 도시와 군대에 공급했으며 건초 수확은 농촌 공동체의 중요한 노동이자 축제이기도 했다. 특히 전시에는 건초와 귀리 확보가 군대의 이동과 생존을 좌우했다. 몽골군의 러시아 원정과 1812년 나폴레옹 기병대의 몰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군마 운용은 전쟁의 승패가 병력과 전투력에만 아니라 사료와 운송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도 달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말을 운송이나 농업에 이용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건초의 역사는 에너지와 식량, 물류 체계가 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도 석유와 천연가스 전량, 곡물과 사료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분쟁이나 공급망 혼란이 발

생할 때마다 에너지와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과거에 건초가 부족하면 마차와 군대가 멈췄듯 오늘날에는 연료와 원료, 사료의 공급이 끊기면 산업과 교통, 축산업 전체가 영향받는다. 건초의 역사는 문명의 발전을 이해하려면 위인과 전쟁에만 아니라 사회를 실제로 움직인 자원과 유통망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번 호 「역사 프리즘」은 《루스키 미르》 2024년 3월호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수 세기 동안 인류 문명을 움직인 건초의 역사를 살펴본다. 건초의 종류와 생산 방식, 러시아의 주요 생산지와 운송 체계, 전쟁과 농업에서 건초가 맡은 역할을 따라가며 평범해 보이는 풀이 어떻게 전략 자원이 됐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서 사람과 동물, 도시와 군대를 움직인 물질적 기반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오늘날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건초 이야기

건초는 수 세기 동안 마차와 수레 같은 운송 수단의 '휘발유' 역할을 했다. 의외로 건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는 약 15억 대에 이른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브라질에 특히 많은 자동차가 보급돼 있으며, 러시아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4,300만 대다.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연료는 평균 약 1,000kg으로, 그 에너지양은 약 4만 5,500메가줄(MJ)에 달한다. 참고로 1메가줄은 물 약 3리터를 끓일 수 있는 에너지다.

19세기 말 자동차가 사람들의 삶에 자리 잡기 전까지 인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해 왔다. 그중 가장 널리 쓰인 수단이 바로 약 5,500년 전 가축화된 말이었다. 인간이 길들인 동물 가운데 말만큼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존재는 없다. 말은 당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사람

볼쇼이 극장 앞 택시 승강장(1935년) ⓒ《루스키 미르》

>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만 해도 러시아에는 2,300만 마리가 넘는 노동마가 있어”

과 물자, 질병과 문화가 이동하는 속도와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 놓았다. 또한 전쟁과 농업에 혁명을 일으키며 인류 문명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발전은 말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을 일상에서 거의 접하지 못한다. 이제는 승마를 즐기거나 개인 소유의 말을 기르는 것은 극소수의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사치가 됐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만 해도 러시아에는 2,300만 마리가 넘는 노동마가 있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말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그리고 말에게는 사료가 필요했다.

범람원 초지와 ‘목초의 여왕’ 알팔파

건초는 풀을 베어 말린 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사료다. 건초는 많은 초식 가축의 가장 기본적인 먹이로, 건초만으로도 가축을 기를 수 있다. 오늘날 시중에 판매되는 휘발유는 적어도 다섯 가지 종류가 있지만, 건초는 별도의 등급 표시가 없을 뿐 그 종류가 훨씬 다양하다. 건초마다 영양 성분과 소화율, 유용성 등이 모두 다르다.

건초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 범람원 초지, 건조 초지, 산림 초지, 산지 초지, 초원 초지, 재배 초지에서 생산한 것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는 범람원 초지에서 생산한 건초가 품질이 가장 좋다. 재배 초지에서 얻는 건초도 품질이 뛰어난데 대표적으로 알팔파(자주개자리)가 있다. 특히 알팔파는 사료작물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가치가 높다.

숙련된 마부들은 건초의 향과 색, 심지어 그 안에 섞인 꽃만 보고도 품질을 평가할 수 있었

모스크바강 유역 모로조프 영지에서 건초를 베는 농민 여성들(20세기 초) ⓒ《루스키 미르》

> “노동마 한 마리에게는 1년 동안
> 약 4~5t의 건초가 필요”

다. 건초에 어떤 꽃과 풀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말의 활력은 물론, 젖소의 우유 맛까지 달라진다. 품질 좋은 건초는 선명한 녹색을 띤다. 건초의 색조는 어떤 식물이 섞였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갈색을 띠면 클로버가, 푸른빛을 띠면 습지에서 자라는 사초류나 향기로운 볏과 식물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노동마 한 마리에게는 1년 동안 약 4~5t의 건초가 필요하다. 이를 마련하려면 품질 좋은 초지 약 1헥타르에서 풀을 베어야 한다. 말 100마리를 기르려면 양질의 초지 100헥타르, 즉 1km²가 필요한 셈이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러시아에 있던 노동마 2,300만 마리를 먹이려면 모두 2,300만 헥타르, 다시 말해 23만km²에 달하는 초지가 필요했다. 수 세기에 걸쳐 이어진 건초 생산은 오늘날의 석유 채굴에 비견할 만한 일이었다.

건초 수확

건초를 베는 시기는 초지의 풀이 적당히 자랐을 때며 너무 익기 전에 수확해야 한다. 풀이 이슬에 젖어 있을 때 낫질하기가 가장 수월하므로 농민들은 이른 아침에 들로 나갔다.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건초 수확 방법은 손낫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풀을 베는 일은 건초를 만드는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다음은 말리는 작업이다.

벤 풀은 갈퀴로 초지에 넓게 펼쳐 말렸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뒤집어 골고루 마르도록 했다. 저녁이 되면 이슬이나 밤비에 젖지 않도록 풀을 작은 더미로 모아 쌓아 뒀다. 이런 더

클로버밭의 예초기. 탐보프현 아기셰보 마을 인근(1900년대 초) ⓒ《루스키 미르》

> “노브고로드 지방의 대표적인 건초 생산지 가운데 하나는 로바티강이 일멘호로 흘러드는 광대한 삼각주”

미는 큰 건초더미보다 규모가 작았다.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풀을 널어 뒤집기를 반복했으며 충분히 말랐다고 판단되면 큰 건초더미를 쌓거나 완성된 건초를 초지에서 실어 날랐다. 날씨가 맑으면 건초 수확은 이틀이면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든 건초는 푸른빛을 유지하고 향도 좋았다.

건초를 만드는 일에도 다른 작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노하우가 있었다. 특히 건초더미의 중심 기둥을 세우는 일부터 건초를 쌓아 올리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모두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다. 농민들은 경험에 의존하여 눈대중으로 수확량을 가늠했다. 보통 건초더미 하나에는 약 1t의 건초가 들어갔다.

1헥타르에서 얻을 수 있는 건초의 양은 토양의 종류와 기후 조건, 초지의 식생 구성, 건초 수확과 가공 방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헥타르당 1~10t 정도를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초가 어디에서 대량 생산됐고, 어디로 보내졌는지 살펴보자. 노브고로드 지방의 대표적인 건초 생산지 가운데 하나는 로바티강이 일멘호로 흘러드는 광대한 삼각주였다. 길이 530km에 이르는 로바티강은 중세에 유명한 교역로이기도 했다. 삼각주 면적은 약 400km²에 달하며 봄이면 대부분 물에 잠긴다. 1929년 사제이자 향토사 연구자였던 알렉산드르 플라예프 신부(훗날 러시아 정교회의 신순교자)는 이 지역 식생에 관해 이렇게 묘사했다. “품질이 가장 좋은 초지는 일멘호 주변, 즉 툴레벨만 일대의 낮은 범람원과 로바티강 삼각주의 이른바 ‘포즈냐(건초를 베는 초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풀이 무성하고 키도 크다. 강과 수로를 따라 이어진 둔덕에는 봄철 홍수 때 잠시 물에 잠기는 부드러운 범람원 초지가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건초는 영양가가 높고 품질이 뛰어나며 딱따구리풀, 갈퀴나물, 클로버, 밀과 풀 등이 풍부하게 자란다…”

건초더미의 무게 측정 ⓒ《루스키 미르》

로바티강 삼각주는 오래전부터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건초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1헥타르당 약 4t의 건초를 수확할 수 있었으며 삼각주 면적의 4분의 1만 이용해

> “건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문화와도 깊이 연결돼 있어”

도 약 4만t의 건초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적어도 말 1만 마리를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양이었다. 여름에는 건초를 베어 수로 주변 강둑에 더미로 쌓아 뒀다가, 겨울이 되면 강이 얼어붙은 틈을 타 썰매에 실어 각 마을까지 날랐다. 일부는 전용 선박을 이용해 운반하기도 했다.

삼각주 입구에는 지멘스(러시아어로는 시멘스) 가문이 소유한 흐멜레보 영지가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이곳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전기 기술 회사 ‘지멘스’의 최대 건초 집하장이 운영됐다. 각지에서 모인 건초는 이곳에서 압축·포장된 후 바지선에 실려 로바티강과 일멘호, 볼호프강, 네바강을 거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운송됐다. ‘지멘스’의 공장은 당시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며 발전기와 무선통신 장비를 생산했지만, 물자를 운반하는 데는 여전히 수백 마리의 말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 말들 역시 건초와 귀리라는 ‘연료’를 공급받아야 했다.

건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문화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 출산과 장례, 명절 의식에 사용됐으며 건초 수확 자체도 파종과 추수에 버금가는 삶의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졌다. 예전에는 대개 성 베드로 축일이 지난 뒤 시작하는 건초 수확 철이 마을의 큰 행사였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들로 나가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풀을 벴다. 이런 모습은 러시아 문학에도 자주 등장한다. 레프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에서 무려 세 장에 걸쳐 건초를 베는 장면을 그렸고 미하일 숄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에는 건초를 베며 땀에 젖었지만, 활기가 넘치는 농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베레사예프 역시 농촌 처녀들이 건초를 베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묘사했다. 농민과 지주들의 삶을 다룬 러시아 작가라면 누구도 건초 수확 이야기를 지나칠

건초 수확(20세기 초) ⓒ《루스키 미르》

수 없었던 것이다. 화가들 역시 이런 풍경을 즐겼다. 블라디미르 오를롭스키와 보리스 쿠스토디예프, 이삭 레비탄, 표도르 시치코프, 아르카디 플라스토프, 빅토르 이바노프를 비롯한 수많은 화가가 건초 수확을 주제로 작품을 남겼다.

오늘날에는 각종 첨단 농기계가 등장하면서 건초를 생산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1850년 최초의 건초 압축기가 발명됐으며 현재는 건초 압축 농기계인 베일러(Baler)를 이용하여 들판에서 건초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곧바로 압축 포장한다. 장비를 제대로 갖추면 한 사람이 대량의 건초를 베고, 말리고, 수거한 뒤 포장하는 일까지 모두 해낼 수 있다.

역사 속 건초의 역할

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는 건초를 먹이기 시작한 일이었다. 이는 서기 1천 년기 초 무렵의 일이다. 그전까지 말은 풀이 일 년 내내 자라는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몽골 말처럼 눈을 헤치고 스스로 먹이를 찾는 품종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건초를 저장해 먹이기 시작하면서 추운 지역에서도 말을 기를 수 있게 됐다.

앞서 언급했듯 건초는 말을 움직이는 연료였다. 오늘날 휘발유가 문명의 기반을 이루는 전략 자원이라면 과거에는 건초가 그런 역할을 했다. 또한 건초는 젖소의 먹이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건초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없었다면 인간 역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저 마른 풀에 불과해 보이는 건초가 사실은 인류 문명을 떠받쳐 온 핵심 자원이었던 셈이다.

러시아에서 건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는 도시 지명만 봐도 알 수 있다. 러시아에는 '건초 시장', '건초 광장', '건초 거리'가 없는 도시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만약 건초가 없었다면 사람을 태우는 마차도, 화물을 나르는 짐마차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가정하면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건초가 사라진 과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곧 역사의 종말을 의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초 시장(20세기 초) ⓒ《루스키 미르》

했다.

과거 전쟁의 병참과 대규모 인구 이동을 둘러싼 흥미로운 논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교통망과 연료, 식량, 운송 수단의 확보가 역사적 사건의 규모를 어디까지 결정했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1237~38년 겨울의 몽골 침공이다. 일부 학자는 몽골군이 10~15만 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수많은 러시아 도시를 점령한 후에 대노브고로드에 진군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 왔다. 그런 규모의 군대를 움직이려면 말만 30~40만 마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병참 체계와 무엇보다 건초를 비롯한 사료의 고갈 상태를 고려하면 이런 병력 규모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사례는 1812년 나폴레옹 기병대의 몰락이다. 나폴레옹은 약 6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그 가운데 기병만 약 8만 명이었으니 말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사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말들은 원래 먹으면 안 되는 사료를 먹었고 결국 떼죽음을 당했다. 1812년 러시아에서 탈출한 대육군은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말은 거의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다.

러시아 기병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가 있다. 15~17세기 러시아에서는 군마로 주로 '바흐마트'라 불리는 노가이 초원의 말을 길렀다. 이 말은 먹이를 크게 가리지 않아 사육하기가 수월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 러시아군이 홀슈타인 품종의 말을 국외에서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말은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러시아산 건초는 거의 먹지 않았고 독일산 최고급 귀리만 먹었기 때문이다. 결국 귀리마저 독일 지역에서 수입해야 했다.

7년전쟁을 앞두고 러시아군은 군마의 사료 배급량을 대폭 늘렸다. 여름철을 제외하면 거의 연중 내내 건초와 귀리를 먹였고, 군마의 복무 기간도 15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다. 그 결과 7

헬민스키, 「모스크바에서의 퇴각」 ⓒ《루스키 미르》

붉은 군대 기병대 ⓒ《루스키 미르》

년전쟁에서 러시아 기병은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하며 수많은 승리를 거뒀다. 당시 베를린을 기습해 점령한 것도 바로 러시아 기병이었다.

1941년 소련의 경기병사단 정원은 병력 2,939명, 말 3,147마리였다. 비록 이 시기에는 기병이 과거만큼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1945년에도 붉은 군대는 여전히 150만 마리가 넘는 말을 운용하고 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보급 마차를 끄는 군마였다. 하지만 이 말들 역시 '연료'를 공급받아야 했다. 무엇보다 건초가 필요했다. 실제로 소련군은 그 많은 말을 끝까지 유지했고 이를 본 독일 주민들은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 말은 공복 상태로 하루를 넘기기 어렵고 길어야 이틀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따라서 기병은 사료 보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보급이 끊기고 건초가 바닥나면 군대도 더는 유지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건초가 인류 역사에서 차지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건초

오늘날에는 자동차 수가 말과 소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지만, 건초는 여전히 중요한 자원이다. 건초 없이는 가축을 기를 수 없다. 최근 수십 년 사이 농업에서는 건초보다 사일리지를 만드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일리지는 영양가가 높은 조사료로 수분 함량을 50~55%까지 낮춘 뒤 밀봉해 발효·보존한 풀이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의 농기업은 건초 650만t과 사일리지 1,960만t을 확보했다. 이는 말 약 130만 마리와 소 약 800만 마리를 먹일 수 있는 양이다. 오늘날 러시아의 초지는 과거처럼 자연 범람원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생물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다만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상이 말이 아니라 젖소일 뿐이다. 베어낸 풀은 소의 '연료'가 되며 우리는 그 소가 생산한 우유와 유제품으로 에너지를 다시 얻는다. 물론 쇠고기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건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베리우 박물관
망각에서 돌아온 시인들의 빈 집

이영수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 박사과정

오베리우, 러시아의 '마지막 아방가르드'

오베리우(OBERIU)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까지 레닌그라드(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한 부조리 시인과 작가 동인회다. 동인회 명칭은 '실재 예술 연합'을 뜻하는 러시아어 표현 '오브예디네니예 레알리노고 이스쿠스트바(Ob′edinenie real′nogo iskusstva)의 약자이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 약자에서부터 드러난다. 대개는 앞 글자만 따서 '오브리(OBRI)' 정도가 돼야 할 텐데, 에(E)와 우(U)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붙어 있다. 이처럼 비논리적인 군더더기는 오베리우 시학에 담긴 부조리함을 무엇보다도 더 잘 보여준다. 이른바 '실재 예술'을 추구한 이들은 언어와 상식을 교란하는 부조리함을 탐색 도구로 삼아 익숙한 일상 이면의 적나라한 실재를 직시하고자 했다.

한편, 오베리우는 러시아의 '마지막 아방가르드'로도 불린다. 이들은 선배들의 예술적 시도를 흡수하고 비판적으로 극복해 나갔지만, 모임의 성격만 놓고 보면 비교적 독자적인 '자기들만의' 공동체였다. 20세기 초 러시아 예술계는 창작 지향에서 서로 각을 세우던 이들이 실제로는 자연스레 교류하며 지내던 독특한 시공간이었다. 이를 떠올리면 오베리우의 폐쇄성은 오히려 예외적인 편이다.

물론 이들은 동시대와 완전히 단절돼 있지 않았고, 단절될 수도 없었다. 다닐 하름스와 알렉

> “오베리우 박물관은
> 특정 인물에 헌정된 공간이 아니라
> 지적 연대 전체를 기억하는 공간”

산드르 베덴스키는 유년 시절부터 상징주의 시인들을 흠모했고, 오베리우 결성 전 미래주의 그룹에 몸담기도 했으며(두 사람은 거기서 처음 만났다), 어느 시점엔 ‘청년 형식주의자’들과 함께 문집을 펴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런 상호작용의 끈은 바로 베덴스키가 살았던 아파트에 최근 문을 연 오베리우 박물관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오베리우 박물관의 장점은 하름스라는 대표적인 인물만을 내세우지 않고 비교적 덜 알려진 회원들 역시 고르게 다룬다는 데 있다. 니콜라이 표도로프의 우주론에 깊이 매료됐던 니콜라이 자볼로츠키, 아동문학 잡지 편집자로도 활동한 니콜라이 올레이니코프, 시인이자 극작가 이고리 바흐테레프, 동인회에 잠시 머물렀던 콘스탄틴 바기노프, 그리고 박물관으로 탈바꿈한 이 집의 주인이자 하름스와 함께 그룹을 이끌었던 베덴스키까지, 박물관은 동인 모두에게 관심을 둔다. 여기에 오베리우 모임에 드나들던 철학자와 화가, 외부 문인들의 흔적도 적절히 조명된다. 회원들과 그 주변인들이 쓴 글, 그들이 서로 교류한 흔적들이 그리 많지 않은 전시품의 주류를 이룬다. 그중에서도 잡지, 메모, 편지, 그림과 초상화들이 특히 눈에 띈다. 박물관 측이 강조하듯, 이곳은 특정 인물에 헌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 지적 연대 전체를 기억하는 공간이다. 박물관의 이름이 ‘베덴스키 박물관’이 아니라 ‘오베리우 박물관’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설립자들의 말마따나 (이미 사라지고 없기도 하지만) 만약 하름스의 아파트에 박물관이 조성됐다면 그곳은 ‘하름스 박물관’이 됐을 것이다.

다양한 전시물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오베리우 시인들이 글을 남겼던 아동 잡지 모음이다. 박물관 학예사는 잡지 《고슴도치(Yozh)》의 창간 이후 첫 3년 동안 발행된 모든 호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얻은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자랑스레 소개한다. 오베리우 회원인 올레이니코프는 바흐무트의 문예지에서 문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해 《고슴도치》, 《방울새(Chizh)》 등의 편집진으로 활약했고, 하름스와

오베리우 박물관 건물 출입문 ⓒ RIO

> “주류 문단에 속하지 못했던 오베리우 시인들은 아동문학을 유일한 출판 창구이자 생계 수단으로 삼아”

베덴스키 등이 여기에 정기적으로 동시나 동화를 기고할 기회를 얻었다. 이 잡지들은 작가 사무일 마르샤크의 책임 편집 아래 당대 최고의 아동 잡지로 큰 명성을 누렸다.

주류 문단에 속해 있지 않던 그들의 작업물은 공식적으로 출판되기 어려웠고, 따라서 아동문학 작업은 한동안 거의 유일한 출판 창구이자 수입원이었다. 그들이 이 작업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어쩌면 생계 수단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름스가 “나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런 추정은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아동문학 창작은 오베리우의 ‘유일하게 출판된’ 작품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진지한’ 창작과 그것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지점도 있다. 알렉산드르 코브린스키 같은 문학 연구자들이 주목하듯, 오베리우 시학의 난해한 인과관계와 언어적 부조리는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유아주의 기법과 통한다. 이에 관해 박물관 학예사도 재미있는 경험을 들려준다. 여섯 살 조카에게 오베리우 시를 읽어줄 때마다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을 아이가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심지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맞힐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오베리우 박물관의 아동 잡지 소장품 ⓒ RIO

> “오베리우의 유산은 폐허 속에서
> 원고를 찾아 지켜낸 동료 야코프 드루스킨 덕분에
> 세상에 공개돼”

원고는 불타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쓰는 폐쇄적 문학 동인회는 소비에트 문단에 설 자리가 없었다. 1928년 첫 공개 모임 이후부터 오베리우에는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예술,’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항의,’ ‘문학적 백위군’ 등 갖은 비판이 쏟아졌으며, 끝내 악명 높은 ‘형식주의자’ 딱지가 붙었다.

하름스, 베덴스키, 바흐테레프는 1931년에 처음으로 체포됐다. 몇 달 후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 거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풀려나긴 했지만, 동아리로서 오베리우는 존속할 힘을 이미 잃은 상태였다. 1937년부터 주요 회원들의 출판이 금지됐고, 최소한의 급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신세로 내몰렸다. 이즈음 하름스는 일기에 “먹을 것이 없다, 지독하게 굶주리고 있다”라고 쓴다. 그는 1941년 다시 체포돼 레닌그라드 교도소의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 같은 해 체포된 베덴스키도 카잔으로 이송되던 중 목숨을 잃었다.

박물관 측에서 말하듯, 이런 상황을 겪은 이들에게 잊힘은 예정된 일이었다. 생존 당시 오베리우 동인으로서 쓴 작품들은 출판되지 못했으므로 오로지 아동문학 작가 정도로만 간간이 회자할 운명이었다. 유산이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까운 동료인 철학자 야코프 드루스킨의 노력 덕분이었다. 1941년 하름스가 두 번째로 체포된 후 레닌그라드 봉쇄가 시작되자, 주인 없는 아파트는 폭격으로 반쯤 파괴됐다. 드루스킨은 하름스의 아내 마리나 말리치와 함께 아파트를 찾아갔다. 두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린 몸을 이끌고 폐허를 뒤지며 하름스, 베덴스키를 비롯한 동인들의 원고를 하나하나 찾아냈다. 드루스킨은 그렇게 건져 올린 원고를 여행 가방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고 전쟁 내내 이 가방을 지켜냈다. 피난길에 오른 주인을 따라 시베리아의 치타에까지 갔다 온 가방은 오베리우 박물관의 첫 전시에서도 대중에 공개된 바 있다.

코무날카의 고고학

박물관이 위치한 공간, 다시 말해 열 살이던 베덴스키가 1914년부터 1936년까지 살았던 스예진스카야 거리 37번지 아파트는 여덟 개의 방을 갖춘 고급 신축 주택이었다. 그러나 이 집도 1920년대 당국이 주택난 해결책으로 추진한

알렉산드르 베덴스키의 수감자 식별 사진 (1941) © 위키피디아

> “박물관 전문가들은 베덴스키 아파트에 남은 흔적들을 고고학적인 방식으로 복원해 내”

밀집화 정책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당대 최고 수준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어머니가 집 안에 진료실을 두고 환자를 받은 덕에 징발이 2년 정도 늦춰지긴 했지만, 결국 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같이 사는 공동주택인 코무날카로 바뀌게 됐다.

당시 거주자들은 누가 어느 방을 썼는지, 각 방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박물관 개장을 준비한 전문가들은 문헌학적으로, 또는 심지어 고고학적인 방식으로 단서들을 하나씩 이어 붙여야 했다. 예를 들어 벽지로 쓰인 신문지의 발행 날짜를 근거로 ‘이때쯤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겠구나’라고 추정하는 식이다.

이 공간은 기업가 안드레이 그나튜크의 손을 거쳐 사립박물관으로 거듭나 2025년 말 문을 열었다. 엔지니어 출신인 그나튜크는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하름스의 작품을 직접 자가 출판했을 만큼 열성적인 오베리우 독자기이도 하다. 베덴스키 일가가 흩어진 뒤부터 박물관 개장을 위해 매입되기 전까지, 이 코무날카에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다. 학예사는 베덴스키의 조카인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레비탄 교수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는 레닌그라드 봉쇄 시기였던 세 살에 어머니를 잃고 우랄로 이송됐다. 청년이 돼 레닌그라드로 돌아왔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내가 세 살 때까지 살던 곳’이라며 무작정 침입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건물 앞을 서성이다 돌아가기만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저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뒤에도 학생들과 레슨을 마치면 함께 그 집 앞으로 가 보자고 제안하곤 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는 틈에 슬쩍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다고 전한다. 레비탄은 박물관 측의 초청으로 2025년 5월 마침내 아파트를 방문할 수 있었다. 80여 년 만에 고향집을 둘러본 그는 석 달 뒤에 세상을 떠났다.

오베리우 박물관의 독특한 분위기는 바로 특별한 복원 철학에서 비롯된다. 절반쯤 폐허인 아파트 안에선 시간이 멈춘 듯하고, 벗겨진 페인트층은 시인들이 좇던 예기치 못한 드러남을 비유하는 듯 보인다. 학예사를 따라 거실과 침실 세 곳, 응접실 등 여덟 개의 방을 본 뒤에는 아파트를 자유롭게 다시 둘러볼 시간이 주어진다. 일반적인 ‘자택 박물관(dom-muzei)’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방식이다. 아마 방문객이 스스로 무너진 의미를 새로운 연결로 복원해 내기를 바라는 뜻일 것이다.

베덴스키의 방은 복도 맨 끝에 자리 잡고 있다. 불규칙하게 길쭉한 사다리꼴 형태의 이 방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드루스킨의 기록과 현장 구조를 대조한 끝에 유추할 수 있었다. 방 안에는 베덴스키가 사용한 것이 확실한 연필, 그의 여권, 작은 장난감 하나를 제외하면 전시물이 거의 없다. 실제로 베덴스키는 별다른 살림살이 없이 이렇게 텅 빈 방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의 집은 실제로 회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됐다.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그 자체로 창조적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역할을 했던 듯하다. 방문자들의 회상에 따르면 외벽과 맞닿은 ‘차가운 벽’은 벽지가 모자랐던 탓에 콘크리트가 노출돼 있었고, 대신 온통 그림과 낙서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베덴

베덴스키의 방과 '차가운 벽' ⓒ RIO

스키가 사람의 눈 그림이 빼곡히 채워진 이 벽 앞에서 눈에 관한 시를 낭독한 일화를 전하고, 하름스의 아내 말리치는 남편이 분홍색 페인트가 든 양동이를 들고 베덴스키 집에 가서 벽을 신나게 칠한 일을 기억한다.

복원 전문가들은 예닐곱 겹이나 되는 벽지와 신문지를 조심스레 걷어낸 끝에 이 분홍색 페인트층을 실제로 찾아냈다. 베덴스키의 아이들이 키를 재며 그어 놓은 금, 하름스의 손바닥 자국도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질 뻔했던 흔적들을 되살린 고고학적 복원 과정은 어쩌면 오베리우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일과 가장 닮았다.

제의를 닮은 관람

오베리우 회원 중 가장 먼저 복권된 사람은 올레이니코프(1957)였고, 하름스(1960)와 베덴스키(1964)가 그 뒤를 이었다. 물론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다. 복권 이후에도 원고는 드루스킨의 가방 속에서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1960년대 들어 하름스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드루스킨은 스스로 나서 원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해금 국면을 맞아 출판이 가능해지자, 비로소 오베리우의 창작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다.

당대 문인들과 폭넓게 교류했던 아방가르드 연구자 니콜라이 하르지예프는 오베리우가 망각에서 기적적으로 구제된 데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단 한 줄도 인쇄하지 못한 채 하나의 사조가 실현된 것은 실로 극히 드문 사례다." 따라서 오베리우를 이야기할 때 '보존'과 '복원'이라는 말은 유난히 무거운 의미를 띠게 된다.

시간과 기억을 보존한다는 최소한의 목적을 공유한다면, 박물관의 존재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어떤 박물관에서는 특정 장소를 지키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행위 자체가 기억의 방식이 된다. 조금이나마 시인들의 흔적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 오베리우를 망각에서 건져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중한 기적으로 여겨지는 이 박물관의 경우엔 특히 더 그렇다.

> “학예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오베리우 박물관의 관람은 시인 한 명 한 명을 불러내는 제의와 비슷해”

오베리우 박물관 학예사의 설명 장면 ⓒ RIO

따라서 오베리우를 기리는 박물관은 전시보다는 제의적인 성격을 띤다. 방문객은 시인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는 이 의식에 참여하게 된다. 박물관이 오직 학예사의 안내로만 운영되는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고골의 소설 『죽은 혼』을 읽어본 독자라면 거기에 등장하는 의뭉스러운 지주 소바케비치를 기억할 것이다. 죽은 농노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면 그는 이상하리만치 들떠서, 그들의 모습을 마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보다 온 듯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그와 닮은 희열을 띤 학예사의 안내는 특히 인상적이다. 얼마 전 파벨 잘츠만(분석예술을 창시한 파벨 필로노프의 제자이자 오베리우 회원들의 동료)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학예사는 정보를 나열하는 박식가의 어조가 아니라 그 옛날 이야기꾼 같은 태도로 오베리우 동인들을 하나씩 불러낸다. 집 구석구석에 숨겨진 발견의 가치를 짚어 주고, 시인의 자손들이 박물관을 방문해 들려준 이야기를 전한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안에는 사라진 문인들을 위한 작은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박물관의 마지막 공간인 베덴스키의 텅 빈 방을 채우는 것은 시인의 주요작 중 하나인 「애가」(1940)의 낭독이다. 그의 첫 사실혼 아내이자 모든 오베리우 회원의 뮤즈였던 타마라 리팝스카야가 남긴 육성 녹음이다. 시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죽음을 찬미하고 역겨운 것을 찬미했으며
기억조차 오만이라 여겼으니
그 때문에 우리는 불태워진다.”

베덴스키의 작품 가운데서도 드물게 서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이 작품은 시인 자신과 동료들 전체의 운명에 관한 애가처럼 들리기도 한다. 천운이든 예술 자체에 깃든 어떤 불멸의 의지 덕분이든 원고는 불타지 않았다. RIO

국제 스포츠계 복귀
러시아의 권리 회복과 당면 현실

김유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2026년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 스포츠에 적용해 온 공통 제한 체계를 사실상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제경기연맹과 국제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시했던 러시아 선수·대표팀 참가 제한 권고를 철회하고,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자격 정지도 잠정적으로 해제한 것이다. 러시아 스포츠계가 2022년 이후 기다려 온 중대한 변화였다. 러시아 주요 언론도 이를 국제 스포츠 무대로 복귀하기 위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완전한 복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IOC가 없앤 것은 러시아 선수의 참가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던 공통 지침이지, 모든 국제 대회의 문호를 자동으로 개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러시아 선수와 대표팀의 출전 여부는 각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이 자체 규정과 정치·법률적 여건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러시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배제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종목과 대회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복귀가 진행되는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결국 러시아가 이번 결정으로 얻은 것은 확정된 참가권이 아니라 국제 스포츠 질서 안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직 아니다.

낮아진 장벽, 남아 있는 관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스포츠계가 러시아에 적용해 온 제한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

나는 러시아 선수와 대표팀의 국제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조치였고, 다른 하나는 ROC 조직 자체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한 처분이었다. 그러나 2026년 7월 7일 IOC의 결정은 이 두 제한 조치를 동시에 완화했다. IOC는 국제경기연맹과 국제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시했던 러시아 선수·대표팀의 참가 제한 권고를 철회하고 2023년 10월부터 정지돼 있던 ROC의 자격도 잠정적으로 회복시켰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무대 진입을 가로막아 온 IOC 차원의 공통 기준이 더는 적용되지 않게 됐고, 앞으로 러시아 선수와 대표팀의 참가 허용 여부와 국가 상징 사용 문제는 각 종목 연맹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러시아 국적을 기준으로 한 일괄 배제 방식에서 연맹별 심사와 결정이 중심이 되어 종목별로 서로 다른 복귀 경로가 형성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다.

ROC의 자격 정지는 선수 출전 제한과는 별개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ROC가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지역의 올림픽위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이자, IOC가 2023년 10월 ROC의 자격을 정지했다. 2025년 12월 ROC가 정관을 개정하고 해당 지역의 올림픽위원회를 조직 구성에서 제외하고 나서야 2026년에 ROC의 자격 정지 제한이 해제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인 복귀가 아니라 '잠정적'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ROC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가올림픽위원회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스포츠 조직을 회원으로 포함해서는 안 되며, 국제 대회에 복귀하는 모든 러시아 선수는 관련 도핑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ROC의 지위는 이런 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회복된 것이며, IOC는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국가 상징 문제도 남아 있다. IOC는 러시아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국기와 국가, 유니폼 등 국가 상징물의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러시아에서 IOC 주관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IOC 행사에 초청하지 않는 기존 방침도 유지된다.

일부 개별 국제경기연맹 차원에서는 이미 자체 대회에서 러시아 선수 참여와 국기, 국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기연맹의 이런 결정이 올림픽 본대회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폐회식과 시상식에서 러시아 국가 상징 사용 여부는 IOC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ROC가 조직으로서 자격을 회복한 것과 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기가 게양되고 국가가 연주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번에 사라진 것은 러시아 스포츠를 일률적으로 차단해 온 하나의 공통 장벽이다. 그 대신 각 종목 연맹의 규정, 개최국의 비자 정책, 국가별 제재, 반도핑 검사와 대회별 자격 기준이라는 여러 관문이 여전히 남았다. 러시아 선수들이 규정상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실제 경기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통로가 열린 것은 아니다.

> "러시아 스포츠를 일률적으로 차단해 온 하나의 공통 장벽은 사라졌지만, 각 종목 연맹의 규정, 개최국의 비자 정책, 국가별 제재, 반도핑 검사와 대회별 자격 기준 등 여러 관문이 여전히 남아"

복귀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러시아 정부와 체육계는 IOC 결정에 대해 자국 선수들의 정당한 권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미하일 데그탸료프 러시아 체육부 장관 겸 ROC 위원장은 이를 국제경기연맹들이 러시아 선수의 권리를 복원하도록 하는 청신호이며, 이번 변화가 러시아 체육부와 ROC가 추진해 온 법률적·외교적 활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1] 《코메르산트》도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국제 스포츠계 전면 재진입 과정에서 거둔 매우 중요한 승리이며, 특히 2024년 취임한 뒤 국제 스포츠 기구와의 관계 단절 기조에서 스포츠 재통합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데그탸료프 장관 개인에게도 큰 승리라고 전했다.[2]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역시 IOC의 결정을 ROC와 IOC 간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며,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가 권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3] 이처럼 러시아 정부가 강조한 것은 특정 대회의 출전 자격을 즉각 확보했다는 점보다는 국제 스포츠 체제의 정식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점이었다.

러시아 체육계 일각에서는 IOC가 과거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우마르 크렘료프 국제복싱협회(IBA) 회장은 《RBC Sport》와의 인터뷰에서 ROC의 자격을 잠정적으로 복원하고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제한 권고를 철회한 것은 IOC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4]

그러나 IOC가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논리는 러시아 측의 해석과 다르다. 러시아에서는 이를 국가적 권리와 조직적 지위의 복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지만, IOC는 정부의 행동과 선수 개인의 경쟁 기회를 분리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을 내세웠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모든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선수들이 자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5] 즉, 러시아 선수의 복귀라는 결과는 같지만,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는 출발점은 다르다.

러시아 언론도 정부와 체육계의 환영 입장만 전달하지는 않는다. 《RBC Sport》는 "IOC의

미하일 데그탸료프 러시아 체육부 장관 겸 ROC 위원장 ⓒ《RBC Sport》

러시아 제재 해제 권고를 기뻐하기에는 왜 아직 이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IOC의 권고 철회가 개별 국제경기연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6] ROC에 대한 승인이 복원되고 IOC 차원의 공통 지침이 사라지더라도, 특정 연맹이 자체적인 출전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 해당 종목의 러시아 선수들은 주요 대회에 여전히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샤밀 타르피셰프 러시아테니스연맹 회장 겸 IOC 위원도 국제경기연맹들과 협력하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 이제 시작되리라고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난 4~5년 동안 국제경기연맹에서 대표성을 사실상 잃었으며, 선거로 결정되는 주요 직책을 되찾는 데는 3~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7]

선수들의 경기 참가 재개와 러시아의 스포츠 외교력 복원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다시 출전하더라도 자국 인사들이 국제경기연맹의 의사결정 구조로 돌아가지 못하면 종목별 정책과 대회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 스포츠의 실질적인 정상화는 선수의 출전권뿐 아니라 국제연맹 내 대표성, 주요 회의 참여, 국제 대회 유치와 경기 행정 분야에서의 역할까지 단계적으로 회복되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개최국의 비자 발급도 현실적인 장애물이다. IOC 발표 직전 러시아 카약·카누 대표팀은 입국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캐나다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 대회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한 예선 과정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청소년 카약팀 역시 폴란드 비자 문제를 겪었다. 이 사례들은 국제경기연맹이 러시아 선수의 출전을 승인하더라도 개최국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제 경기 참가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라는 사실은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IOC가 러시아 대표단의 참가를 허용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비자 정책과 제재 적용 등이 실제 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러시아가 이번 조치로 얻은 것은 경기장에 곧바로 들어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 ⓒ《RBC》

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과정과 조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가깝다.

종목마다 다른 복귀 속도

러시아의 국제 스포츠 복귀는 2026년 7월 IOC 결정 이후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일부 국제경기연맹은 IOC가 러시아 선수에 관한 공통 제한 권고를 철회하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국가대표 자격과 국가 상징을 복원하고 있었다. 국제유도연맹은 2025년 11월 러시아 선수의 국기와 국가 사용을 허용했고, 세계태권도연맹도 2026년 1월 이를 성인 선수까지 확대했다. 이어 세계수영연맹은 4월, 세계레슬링연맹과 국제체조연맹은 5월, 국제역도연맹은 6월 러시아 선수에게 적용하던 중립 자격과 특별 참가 제한을 잇달아 해제했다. 따라서 IOC의 7월 결정은 종목별 복귀 흐름을 처음 만들어낸 조치라기보다는 하계올림픽 주요 종목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뒤따른 성격이 강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IOC 발표 직후 가장 빠르게 후속 조치를 내놓은 종목 가운데 하나가 배구였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7월 8일 러시아 선수에게 적용했던 제한을 해제했다. 배구에서는 이에 앞서 2025년 12월에 성인 대표팀보다 먼저 청소년 대표팀의 참가 통로가 마련된 바 있다. 근대5종, 핸드볼, 탁구에서도 러시아 선수의 복귀가 이어졌다. 7월 9일에는 국제근대5종연맹(UIPM)이, 7월 15일에는 국제핸드볼연맹(IHF)이 러시아 선수에게 적용했던 제한을 철회했다. 국제탁구연맹(ITTF)도 7월 28일부터 러시아 국적 선수와 지도자·임원·지원 인력에게 일반적인 참가 조건을 적용했다. 다만 비자와 제재, 반도핑에 관한 개최국의 요건은 계속 적용되며, 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기·국가와 대표단 지위는 IOC가 별도로 판단한다.

이처럼 러시아 선수들의 경기 참여 범위가 더 확대됐지만, 국제 스포츠계 전체가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IOC는 공통 제한 권고를 철회했을 뿐, 각 국제경기연맹이 독자적으로 참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자율권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 sportbox.ru

대표적인 사례가 축구다. IOC 발표 직후 국제축구연맹(FIFA)이 러시아 대표팀의 재출전 문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코메르산트》는 영국 언론을 인용해 FIFA와 유럽축구연맹(UEFA)이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 없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8]

세계육상연맹은 2026년 7월 초 러시아를 국제 대회에서 제외하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IOC 발표 이후에도 제한이 유지되자 러시아육상연맹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C)에 항소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사안은 IOC가 제시한 재통합 방향과 개별 연맹의 자율적 판단이 충돌할 경우 실제 대회 참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는 IOC가 모든 국제 스포츠 기구를 지휘하는 상급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IOC가 올림픽과 관련된 공통 제한 권고를 철회하더라도 개별 국제경기연맹이 자체 대회에 적용하는 제재와 출전 기준은 별도의 결정이 내려져야 변경된다.

유럽 일부 국가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9개국(에스토니아, 덴마크,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이 러시아 선수의 복귀를 허용한 IOC와 일부 국제경기연맹에 대한 재정지원 삭감을 EU에 요청했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훈련과 대회 준비가 어려운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9]

결국 2026년 7월의 변화는 러시아 스포츠 제재의 종결이 아니라 적용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러시아 국적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일괄적으로 배제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종목·대회·선수별로 출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이동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는 과거의 지위를 곧바로 되찾지는 못했지만, 각 국제경기연맹과 참가 조건을 협의하고 올림픽 예선 출전과 국가 상징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위치를 마련했다. 따라서 2026년 7월은 러시아가 국제 스포츠 질서 안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딘 전환점이었다.

---

1 “МОК отменил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оссиян.”
https://www.sport-interfax.ru/1101788

2 “С нами МОК.”
https://www.kommersant.ru/doc/8798511

3 “В Кремле высоко оценили решение МОК по российскому спорту.”
https://www.sport-interfax.ru/1102000

4 “Кремлев назвал снятие ограничений с россиян признанием МОК своих ошибок.”
https://amp.rbc.ru/rbcnews/sport/07/07/2026/6a4d33c59a79473fd68135a9

5 “Глава МОК объяснила отмену ограничений для 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https://www.rbc.ru/sport/07/07/2026/6a4d1cfa9a7947f490d95cd2

6 “Почему рано радоваться рекомендациям МОК по снятию санкций с России.”
https://amp.rbc.ru/rbcnews/sport/07/07/2026/6a4d1d0d9a7947146a5294c0

7 “Тарпищев фразой «начнется самая сложная работа» оценил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ОКР.”
https://www.rbc.ru/sport/07/07/2026/6a4d1dea9a794717c6d88b84

8 “FIFA и UEFA не планируют снимать санкции с российских команд.”
https://www.kommersant.ru/doc/8798892

9 “Nine EU Nations Urge Funding Cut for Sports Bodies Including IOC over Readmitting Russians.”
https://www.reuters.com/sports/nine-eu-nations-urge-funding-cut-sports-bodies-including-ioc-over-readmitting-2026-07-14/